朝鮮日報

今日本紙八面

新聞價 壹部(朝夕刊)金五錢 朝刊夕刊參錢 壹個月先金壹圓 參個月先金貳圓九拾錢 六個月先金五圓七拾五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拾四字壹行壹圓廿錢 特別欄內貳圓 四號九字壹行 … 八拾錢 七字每壹行 … 指定料五號每壹行參拾錢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崔益 發行所 朝鮮日報社 (京城府堅志洞)

記錄書類其他貴重品等은送出되야더라

社說

強者의權利

一

在伯林日本代理大使伊藤氏는 今番日本의滿洲出兵이 日本의正當한 權利에基因함이라하야 日本의 態度를聲明한바잇섯는데 中國 國民黨의獨逸支部는 此에對한 聲明書를發表하야 滿洲에잇는 日本의權利라하는것은 中國에 對하야 强制的으로된 不平等 條約에 依하야 어든것이라고 하야 伊藤代理大使를 攻擊한 바잇섯다 日本과中國이 오래 동안 巴里에서 싸우고 華盛頓가서싸왓지마는 伯林가서서 로싸우기는 아마戰爭以後의처 음일인가한다 그러나 伊藤氏 는 그戰鬪地點을잘못選擇한缺 點이잇다 獨逸사람들은 戰爭 後에는 더군다나 權利云云에 對하야 그대지興味를가지지아 니하게되엿다 一千三百二十億 金馬克이라하는것도 勿論條約 에依하야 聯合國이獨逸에게請 求한것이엿다

二

그런일가보냐? 一千九百二 十三年一月十一日에 佛白聯合 軍이 相率하야 獨逸의經濟的 心臟되는『루-르』를占領한것도權利 에依하야 實行된것이엿섯다權 利라하는것은 契約에依하야생 겨나는데 契約은合意됨을要한 다 勿論 獨逸가『벨사이유』平 和條約에合意하엿고또一千九百 二十一年五月의倫敦最後通牒에 合意하엿다 그리하엿슴으로그 에依한權利를 保障하기爲하야 取하는手段은 또한權利的行爲 됨을 得할것이라고하것다 은 리하야 佛蘭西는權利의일홈에 依하야 獨逸을壓迫하엿섯다그 리하엿스나 獨逸國民은 그에 對하야着實히反抗하여왓다 이 러한經驗을備嘗한 獨逸國民이 伊藤氏의一片의槪念法學的權利 說에心醉하리라고생각할수는업 다 그리기때문에 獨逸에서는 그것이問題거리가되여서 멀리 우리朝鮮으로外지電信으로 報 道되여온줄로밋는다

三

國과國사이에는엇더냐? 個人과 個人사이에도 所謂權利라하는 것은 恒常强者의것이다 工場 主人은 契約에依하야 勞働者 에게일을식힌다 그와契約에依 한것이다 勞働者가일을하거나 말거나 그것은純然히契約에依 하야決定되는것이라하야 勞働 者를契約에依하야 붓삽어매여 놋는다 그러나 勞働者는工場 에서일하지아니하면餓死하는수 밧게업다는點으로보아서 勞働 者는强制를當하는것이다 즉工 場主人은 한손에는『餓死』라 고은칼을들고 한손에는勞働契 約을들고 勞働者에게臨한다그 럼으로 勞働者는工場主人의命 令대로 服從하야勞働하게된다 日本의滿洲利權云云도 그와마 찬가지이다日本이 中國으로부 터 滿洲에잇서서의利權을어든 것은 勿論中國과의國際的契約 에依하야 어더온것이다

四

滿洲에잇서서의 利權獲得의 由來는 우리가 다아는바이다 日淸戰役의結果에因한日本의遼 東割取이라든지 露獨佛三國의 聯合干涉에因한日本의遼東還附 이라든지 모다오즉强者와最强 者의 權利主張으로된바이엇 섯고 日露戰役의結果로 日本 이露國의所得權을 引繼한것이 라든지 또는一九一六年 關東 州租借期限九十九個年延長條件 을 비롯한所謂二十一個條의調 印이 모다同一한方式으로된것 이다 日本은그때에한손에 칼 을들고 한손에契約文을들고 거긔다가圖章찍기를 中國에要 求하엿다 이와가티窮地에當한 中國은 不得已하야그契約에調 印한것이엇섯다

五

그때의日本外務大臣은 現時 總理大臣 加藤高明君이엇섯고 總相은아조오래동안 早稻田의 一角에잇서서 學生들에게自由 主義의長廣舌을만히吐하든故大 隈重信君이엿섯고 北京駐在日 本公使는現在中國에잇서서 關 稅會議의殊勳者처럼차리고잇는 日置君이엇섯든것은 우리가다 아는바이다 그리하야 中國民 은이條約의調印된五月七日을國 恥紀念日로하야 只今外지직혀 오는것은 또한우리가 明白히아 는바가아닌가? 우리는 權利가 强者에게잇는것을 否認하지아 니한다 그러나 權利가모든것 을 解決하는것은아니다 强者 의權利에弱者의權利를 對抗식 히자! 그리하야 모든것을人 生의本源에溯及하야 解決하여 야만될것이다 또그러케될것을 밋는바이다 日本의滿洲出兵에 因하야 中國各地에서 漸次排 日熱의勃興암을報하는것은 즉 弱者의奮起를意味함이다

婁馬尼皇太子 皇族特權剝奪

(부카레스트一日發) 婁馬尼皇太子『카-롤』殿下는今回皇太子位를廢하는同時에皇族으로의모든特權을剝奪되는旨가宣布되엿스며『아라쿠스토』皇帝는『카롤』殿下의令息으로今年四歲인皇孫『미카엘』殿下는皇儲로樹하는旨를宣言하엿더라

巴爾幹半島에 帝政主義失墜前提 婁皇儲退位와輿論

(雅典二日發) 婁馬尼皇太子『카-롤』親王의退位된事는當地에서最히人心을衝動하엿는데同地에對하야半島에서帝政主義의生命이漸次不振하리라고信하는中이더라

皇太子妃『헤렌』은前希臘皇帝의最히寵愛하던內親王이엿다한다 民主黨은寧히此를질거하며希臘에『빨칸』皇帝『키을루』의復辟에

全獨逸에 祭祝開催制限 經濟不振으로

(나우엔一日發) 農者『케른』市警視廳에서는公私共히『카니발』祭祝電의擧行을禁하엿슴은倣하야巴威政府에서도又全獨逸에亘하야經濟不振으로本年의『카니발』祭祝電의開催에關한嚴重한制限을發表하엿더라

白國議會 新陸軍法可法

(나우엔一日發) 白耳義議會는新陸軍法案을可決하엿스나同法은兵員數와兵役期間을僅少히減縮함에不過하다더라

禁酒法施行後 最初의效果

米國의新年祝賀會

(紐育一日發) 本年의新年祝賀會에서米國에禁酒法을施行한後처음으로一人의死者도내이지아니하고終了하얏다그러나諸病院의報告에依하면회이스키中毒으로三十九名의患者를入院中이라하얏더라

和蘭內閣의危機 ◇…女王의解決努力

(나우엔一日發) 和蘭의『우일헬미나』女王은『도•빗셀』博士를引見하고오래동안同國內閣의危機解決을依囑하엿더라

主義宣傳嫌疑로 共產黨領袖等의處罰

(나우엔一日發) 佛國共產黨의有名한領袖『카시안』氏『도로안』氏等은『모록코』戰爭에反對하는共產主義의宣傳을하엿다는것으로禁錮三十日罰金三萬磅을言渡하엿다더라

米軍縮參議決定 議會의滿場一致로

(나우엔一日發) 華盛頓特報에依하면米國議會는滿場一致로聯盟主催의軍縮會議參加에贊成投票를行하얏스며繼續右參加에要하는費用等을可決하엿더라

軍縮準備會의 米國代表任命

(나우엔三十日發) 駐英米國大使『호-돈』氏는國際聯盟主催의軍縮準備會에出席할米國代表委員長에正式任命되얏고駐伊瑞大使도同委員에任命되얏더라

經濟會議엔 參加無意

(나우엔一日發) 紐育『이부닝、포스트』紙는該會議를提唱한國際經濟會議에對하야米國은參加의意思가無한旨를報道하엿더라

紐育에大火災

(紐育二日發) 當地『쎅로-또-쉬』에火災가起하야『하부두히』距米利加汽船會社及比律賓國立銀行等이燒火되얏다그러나

露土條約成立 戰爭中相互中立의保證

(나우엔一日發) 莫斯科勞農政府外務省은去十二月十七、勞農外務委員長『치체린』氏와土耳其外相『데우픽크、루시도、베』氏와의間에締結된露土保證條約의全文을發表하얏는데此에依하면露土兩國은戰爭에際하야相互中立의保證을約한것으로서條約有効期間은三個年으로되고右議定書의追加條項에는同條約의全文에關하야危機를生하는境遇에는特別의外交手段에依하야解決할旨도規定하엿더라

英伊兩國의諒解 露土協約對抗策等

(나우엔一日發) 『라파루로』에서한英國外相『쳄바렌』氏와伊國首相『뭇소리니』氏와의會見에關하야發表된公報에依하면英、伊兩國間에모든重要問題에關한가장完全한諒解가成立되얏다는報告가잇는데其中에는東洋에서、歐洲兩國의主要한事務分擔에努力한다는것도包含되얏다 그리고伊國國粹黨新聞은이에關하야英、伊兩國의亞細亞法問題에對한敎導는土耳其와勞農露西亞兩國間에最近에締結된協約에對抗하야安全을期할수잇다고說하얏더라

리푸族과 單獨講和는 交涉不應

(나우엔一日發) 佛蘭西外務省은公表로『쑥리앙』首相은豫히西班牙의諒解를得함이아니면『리푸』族과單獨으로講和交涉을開할것을應치아니한다고發表하엿더라

華府條約 參加調印通告

(크펜하겐一日發) 丁抹政府는今回米國政府에對하야中國에關한華盛頓條約에參加調印할旨를正式으로通告하얏더라

伊太利의强震

(羅馬二日發) 二日早朝伊太利에强震이二回나잇섯는데震動時間은大槪十二秒에及한바一은『젠스』를襲하얏고一은『트리에스트』를襲하야損害가相當히잇섯스나程度는아즉不明하며地震地方의通信은杜絶되얏더라

波蘭新內閣 農黨首領이組織

(나우엔一日發無電) 波蘭農民黨首領은內閣을組織하엿더라

全歐經濟界의 好景況前提 新春의伯林活況

(나우엔一日發) 伯林市民은 新春을祝하기爲하야 主要街路에는多數한群衆이나왓스며 … 의精神에則하야本年은全歐洲를通하야經濟上의好景氣가來하리라고一般에期待되더라

歐洲大陸 無前의氣溫

(莫斯科一日發) 歐洲大陸은昨今非常한暖氣로莫斯科도此에漏치아니하야舊臘中은零下十五度라는極寒이던것이元旦에入하야一躍寒暖計는七度의昇高를示하얏다가更히二度로된지라此로因하야急히氷雪이消解하는極히조흔元旦으로서日本大使館은新年祝賀會를開催하야頗히盛會를이루엇더라

各寺院에도多數한參拜者가集合하엿고料理店劇場等도大滿員이다舊臘中央業者百五十萬人을生함에至하엿스나『로카르노』會議

大暴風雨

(倫敦一日發) 卅一日夜英國一帶에亘하야風速一時間八十五哩의暴風雨가襲來하야各處에多大한損害를與하야電信電話交通機關等이모다杜絶되얏고伊太利暴風雨는歐洲大陸各地를襲하야和蘭地方은此의大暴風雨로因하야各河川에大洪水가來하야交通機關이杜絶되지라軍隊가出動하야警戒에努力中이더라

露共產黨 中央執行委員

(莫斯科一日發) 勞農露國共產黨第十四回大會는一日로써閉會하얏는바大會는閉會하기前에六十三名의中央執行委員을選擧하얏는데其中主要人物은如左하다

▲스타링▲토로츠키▲카메네프▲카리닝▲두니코푸▲시노뷔에푸▲톰스키▲라코스키▲쏙하린▲크니신▲치체린▲소코두니코푸 더라

(佛) 筆寫漫 投稿歡迎

이만하면 새해와 씨름하겟지

闕朝璽大學反奉 各地散兵을集合中

(長春三十一日發) 去二十八日의奉天軍事會議에서張作霖氏로부터戰爭中의態度에對하야非難面罵를當하고歸來한闕朝璽氏는深期한바가잇섯던지其子闕子秀氏로하야금部下二千을引率하고四平街警備의張作霖氏派遣의執法軍三百名에게撤退를要求하얏스나此에不應함으로武裝을解除하고更히八面城에도四百의部下를集中하얏스며又一面으로는各地에서募兵에着手하야二十九日長春에도四十名의委員을派遣하야募兵하는中吉長鐵道에使하야武裝解除를當하엿스며又情報에依하면二千의闕軍은吉林方面에進軍中이라傳하야如斯不穩한行爲가잇슴으로一般으로民心이動搖하라하야四洮鐵路는夜間列車의運轉을中止하얏고又張作霖氏도爲一응考慮하야調停員을派遣하얏더라

稅制案은 爲先樂觀? 法案四十六件中

(東京電) 大藏省으로부터今期議會에提出될法律案의數는今日外지決定한것만이四十六의多數에達하엿는데其中最히重要法案이라할것은豫算案以外에稅制整理에關한各種法律案關稅改正案等이며特히稅制整理案은今議會中의中心問題로觀測되는터인政府의稅制案이議會에提出되는境遇에는政友會로부터는地租委讓을前提로하는稅制整理案本黨으로부터는政府案에對한修正案을各各提出될것이、한편稅制整理案의將來는今日은아즉全然豫斷을許치안흐나若本黨의對議會策이今日瞭明되것과하어데外지던지政策本位로써한다하면政府案과本黨案과의間에는多少의

日、英間 無線通話成功

(英國뜨-킨電) 當地의『아마-츄아-無線研究者』『로-손』氏는今日二球式聯結受信機로使用하야東京에잇는一英國人과無線電話通話를行하얏는데其結果는極히良好하얏더라

八面鋒

○日本의今期議會에서는 所謂暴力團을取締하기爲하야 暴威取締法案을 制定하리라니 참 法律의暴威로 人民을取締하겟군

○露土兩國은 最近에한條約을締結하엿는데 그內容은 戰爭에際하야 相互中立하자고 中立條約보담 防戰條約이나 하얏스면

○普天敎車氏는 所謂鍾路訴訟으로 요새法廷出入을하리라고 참 此賤者로군

本報押收

一月三日附 本報第一千九百一號는記事中當局의忌諱에抵觸되야發賣禁止의處分을當하얏기로該記事만을削除하고號外로發行하얏기玆에謹告

朝鮮日報社

一九二五年 重要日誌(三)

三月

【一日】各地에非常警戒○載寧에서 假하라던靑總黃海道地方大會禁止

【二日】暴風으로鬱陵島漁民이島에漂着

【三日】赤旗團李延鎬洪震義文梓等의第一回公判

【四日】京電乘務員四百名이罷業、電車는臨時乘務員이運轉○平壤印刷職工罷業○城津郡城觀駐在所巡査四名이同郡鶴中面李枝鎭의子婦寡居金氏를勒奪

【五日】京電罷業에對하야警察이强制復業

【七日】日本福田大將暗擊事件發布

【八日】國際無產婦人데이講演禁止○東拓移民渡邊勇이浦項記者金和鎬를强盜目的으로路上에서銃殺

【九日】全北靑年大會召集禁止○城北靑年大會禁止

【十一日】培材高普生同盟休學○露領水靑地方에서露國에게虐殺된鯖魚商九名의屍體를黃京協、運柩하야利原에到着○晉州의男女兩高普認可○三日부터北栗東拓에向上會와付同하야奪作한것이七百餘斗落

【十二日】安州新任農校長이四十名學生을無期停學하야生徒全部가退學○中國革命元勳孫文逝去

【十三日】近日京城의感冒患者一四千餘名○太田에開催하라던忠淸靑年大會禁止○郭山駐在所拷問致死案으로金龍洙屍解剖

【十四日】曉星城에서武裝團一名被殺○北滿에서統一機關新民府組織 平壤에서石工組合創立○馬山에서全朝鮮勞平委員會開催

【十五日】近日慶北에內毒感患者一四萬餘○京城印刷職工靑年同盟發會式擧行、朴憲永이祝辭하다가被檢○朝鮮無產靑年同盟創立○大邱에모엿든慶北靑年大會禁止

【十六日】昌城江岸에서武裝團十三名이警備隊와衝突하야三名被殺、中江鎭에서는許文起가引率한參議軍三名이被殺

【十八日】莫斯科에서飢民이食物要求로大示威○京大火三千戶가全燒

【十九日】碧潼에武裝團三十名이衝突하야日警二名이被殺하니此는四十名襲殺事件에對한復讐라고

【二十日】莞島新學校敎師四人에게不穩言辭敎示라는罪로懲役求刑○平壤印刷工業은妥協으로解決

【二十二日】松禾郡人康炳萬은八十老夫로身勢를悲觀自殺

【二十三日】羅州에서全南靑年大會開催

【二十四日】永同飢民鄕基明은一家가杳仁에中毒되야幼兒兄弟는慘死○二十一日罷業關係로平壤府廳에서衛生人夫九十名을解雇하는同時에主動者五名外지檢束

【二十五日】智島에서地主會의橫暴로小作人千餘名이地主會長家에雲集露宿○富川茅島에서破船하야漁婦二十名慘死○中國人苗臣이金鍾吉의七歲女兒를掠去○近來中國人의掠人이非一非再

【二十六日】海西靑年聯合會創立○黃海道胡島近海에서杜鵑採船이沈沒하야死傷五名

【二十九日】慈城에서武裝團三名이被殺○神戶에서朝鮮勞働同盟會創立○日本普選案等兩院에通過

【三十一日】近日牙山一郡에서饑死에瀕한者가六百以上云○現在全朝鮮癩病者四千三百九人○黃海道長淵九味浦間鐵道開通

謹賀新年

平原邑內 金廷琪 / 平原邑內 自信堂印刷所

平原邑內 金星醫院 院長 金

平原 野雲堂醫院 公醫 李

平原郡永柔面松石里 金淵穆

平原 郡守 朴善哲

平原郡邑內 私立永淸學校

京義線魚波驛前 ㊀丸一運送部 平南運送部 店主 韓昌燮

平南平原郡 漢川面長 崔允恒

平南平原郡 靑山面長 李致善

平南平原郡 德山面長 李燦植

平南平原郡 朝雲面長 高榮善

平原郡鷲岩面事務所 面長 金仁煥 會計 朴珍 技手 韋澤鳳 書記 張觀錫 同 李鳳鉉 同 金瑩善

平原郡兩花面事務所 面長 吳達和 會計 宋益勳 技手 朴濟億 書記 金永學 同 金永喆 同 韓俊基

平原郡順安面事務所 面長 全廷爽 會計 李源植 技手 徐永俊 書記 金秉夏 同 玄命燮 同 金賢默

平原郡東頭面事務所 面長 朴永武 書記 金潤赫 同 金潤一 會計 韓元協 技手 朴泰燁

平原郡公平面事務所 面長 李齊楨 會計 金命周 書記 朴宗道 書記 金在夏 同 元榮煥

平南平原郡 石岩面事務所 職員一同

平原郡白德面事務所 職員一同

平原郡東松面事務所 職員一同

平原警察署

哈爾賓道裡石頭道街 極東醫院 醫師 柳東雲 李泰熙

平原郡明倫中學講習所 講習所長 韋基 講師 李澤 講師 金得

平原邑內 自節 黃益性女史

哈爾賓道裡十六道街三七號 朴永九

哈爾賓道裡十四道街二一號 穀物貿易委托買賣 三合商會 咸東哲

哈爾賓道裡一面街 張鳳翼

哈爾賓道裡十七道街六號 朴允實

哈爾賓道裡 朝鮮人基督敎婦人會

哈爾賓道裡小十六道街 姜龍燮

江省安達站頭道街 福聚當 朴寺奉

哈爾賓道裡一面街 哈爾賓館 李應松

哈爾賓道裡地段街十一號 穀物貿易 興隆昌 主任 韋惠林 會計主任 李春軒 電話四二八九番

長春 金成鎰

長春東二條通六 貿易委托精米 日鮮精米所 村由松 貴木珍 金斗弘 電話一二一九番

長春東二條通 穀物貿易精米業 大陸商會

長春三笠町四丁目一五 精米業貿易及委托並 日隆號 主 金道根

長春東三條通三二 朝鮮冷麵家 金昌河

長春入船町 亞東旅館 高光必

長春富士町二丁目十七番地 協信商會 柳奎亭

平南孟山郡玉泉面 面長 趙宅淳

平南北倉邑內 趙炳祿

平南北倉邑內 趙炳業

金剛山長安寺 住持 玄懿龍 法務 文龍翰 財務 李景訓

金剛山表訓寺 住持 崔圓虛 監事 鄭商英 法務 權海月

江原道淮陽郡蘭谷面 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蘭谷牧馬支場 職員一同

京元線洗浦驛經由 愛知產業株式會社機械農場

江原道淮陽郡下北面鐵嶺鑛所 鑛主 姜成國

平南北倉邑內 趙利祚

平南北倉邑內 田寬道

平南北倉邑內 金應鎰

平南孟山郡鶴泉面 書記 承周

平南北倉邑內 司法代書人 禹公烈

平南北倉邑內 司法代書人 朴殷錫

平南北倉邑內 李贊成

平南北倉邑內 理髮師 李奉瑞

平南北倉邑內 郵便所長 砂金勘六

平南北倉 自轉車商 王重煥

平南北倉邑內 金炳九

平南北倉邑內 金應初

平南北倉邑內 玉泉醫院

平南德川郡 大坪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平南德川郡 蠶島面事務所 職員一同

平南德川郡大坪 日新醫院 徐桂錫

淮陽警察署泗東警察官駐在所 鴨下義雄 池龜百二

001555

江原道淮陽郡泗東面下陽里 朴善在

泗東公立普通學校 古賀五市

淮陽郡上北面事務所 職員一同

淮陽警察署道納駐在所 峰崎行雄

淮陽警察署化川駐在所 巡査部長 坪川所一

平南德川郡大坪 金永

平南北倉 北倉金融組合 理事 岡村悌二郎 書記 洪麟周 書記 鄭泰元 書記 金應模

平南北倉邑內 趙元祚

平南北倉邑內 綢緞布木日館雜貨 全義淳

平南孟山郡鶴泉面事務所 面長 白仁德 外職員一同

日本覇王을마저 新春劈頭의籠球戰

사일부터나흘동안을종로청년회관에서 매일밤일곱시반부터열리는국제뎍경기

보라! 覇將들의壯快한接戰을

조선중앙긔독교청년회(中央基督敎靑年會) 주최와조선일보사 후원으로 일본빠스켓뽈의 패왕인조도뎐대학군(早稻田大學軍)을 초빙하야 종성에서때(鬪)를 일곳는 중앙긔독교 청년회군과 또서울에잇는 서양인군과 서로 이회권식을 금사일부터 행하기로 되얏다함은 그동안사고와 밋운동란으로 보도된바어니와

座席과觀衆

신년벽두의 장쾌한 이예입을보랴고 압흘다토아 회원권을 구하는이가 이미뎌원에달하는 성황이어서 좌석의지뎡이 만원이 될예에는 일반관중은 물론이오 신문긔자 혹은통신원도 하는수업시 사절하는일도 엇지안켓슴니다

이것이 해마춤신년의 벽두인것만큼 새해보가장 의미깁흔예입이나하야 일반의 팬는이날을 손곱아기다리든바 일대장관을 이두울 국제뎍경기의첫막은 사일오후 일곱시반부터종로청년회관 운동실에서 열게되얏다 벌서부터 운동실의좌석계한이 잇슴을미리알므는 일반팬들은 서로압흘다토아 좌석지뎡권을 사는등인시긔가 비등되야

아래층일백명(한명에회비일원) 과우층삼백명 (한명에회비오십전)의사오량일 회원권은벌서예약이 되얏슴으로 하는수업시 대삼네사의 량일밧게 구경할수 업는상태에 이르게됨은 얼마나 당일의 장관일것을 미더헤아릴수가잇겟더라

番外세임으로 소년부홍백전

사일부터사일간 매일밤 일곱시반부터 청년회관운동실에서 빠스켓뽈예입은 긘긔와 가티행합뎌이거니와주최측에서는밤마다 팬의흥미를더욱 도읍고저하야 순서외 내동 뎌관소년부의홍백예입도 행할터이라더라

歡迎會와 早軍猛練習 이일밤회관에서

주최측인 중앙긔독교 청년회에서는 후원측과 출전할서양인조선인과 기타관계자 수십여명과 더부터 조대군을 이일오후여섯시부터 뎐의동명월관에서 환영회를열고 주객이 가슴을헤치고 간담이잇슨후 산회하엿는데 조대군은즉시청년회관운동실로함하야련습을행하엿더라

阿峴東洋宣敎會 聖書學院의紛糾

수양부학생이십여명이 불평을품고일제히퇴학

學院先生이生徒를奴隷視?

시내서대문밧 아현리(阿峴里)에잇는 동양선교회성서학원(東洋宣敎會聖書學院) 학생약삼십명은 긘후이십사조의 요구조건을드려 학원당국에 뎨출하엿다가 학원당국의단연한 거절을당하엿슴뿐이 아니라 학생의태도가온당치못하다하야

학원당국에서는학생이십여명에게 밥한끼까지 굶기엇슴으로 학생들은 성결을주창하는 종교학교중에도 성서학원은교역자(敎役者)를양성하는학교임도 불구하고 그와가티고압뎍이며 가혹한태도를취한다하야지난일일에 일제히 퇴교를선언한후 행장을수습하야 가지고각각 그고향으로도라가고 마럿다는데 학생측의말을드르면 학원당국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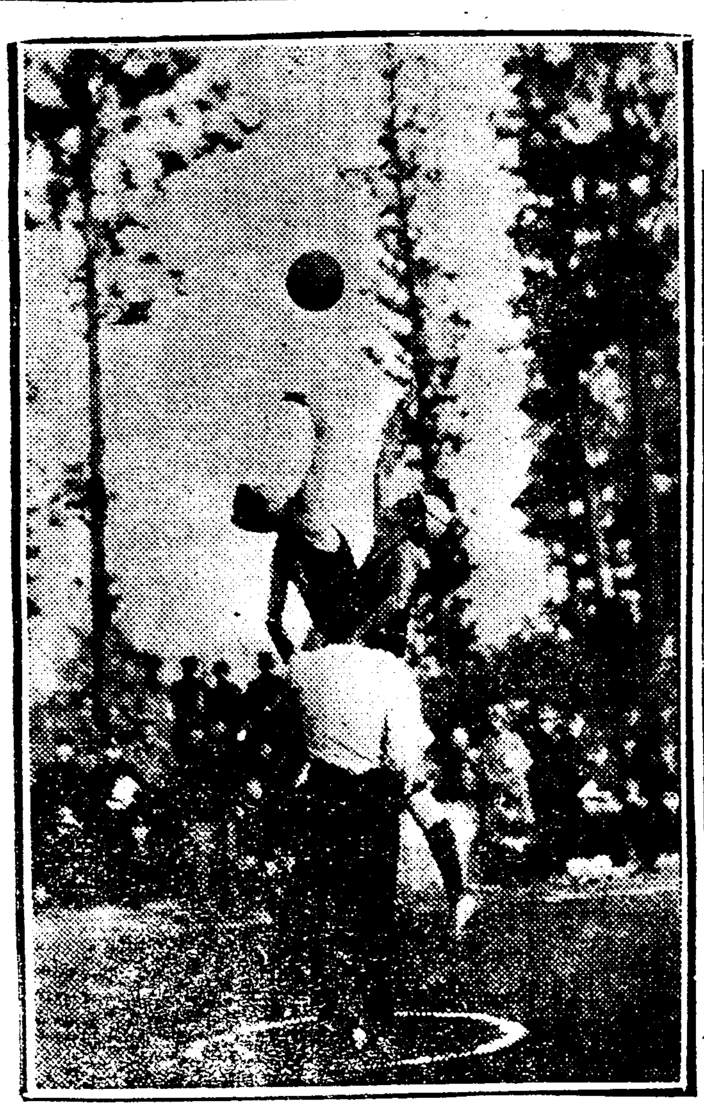
급비교육 하는것을자세하고 모든것이너무 고압뎍이며너무 로예시(奴隷視)하야 허다한 근육노동을 식힘으로 성경공부는 할여가가업스며 또는몃교사들은 교수가 불충분하야 자세히알수가 업다는등여러가지의 불만으로 요구를의미한층고문을 만드러 학원당국에 뎨출하엿든것인데 학원당국에서는 그요구를응하여주기는

고사하고 도리혀학원규측을위반하는행동이라하야밥까지굶기는고로 하나님의 일군을양성한다는 교역자 교육긔관에서 그와가티 가혹한처리를한다하야 일제히 퇴교를선언하는동시에 마출동긔휴학을

리용하야 이미귀향중에잇든학생십여명에게도권부동일한태도를취하자고 그런말을통지하엿다더라

『退學식혓다고 주장하는』 學院當局者 談

별항보도에 대하야동학원 수양부(幹事部)책임자의한사람인최영택(崔永澤)씨는말하되 『수양부생도들을 모집할예에는 성서학원학생과도 달뎌 한층더궁행실천(躬行實踐)을목뎍으로하야 본부에서가장그소질이순량하며 건강한청년들을특히모집한것으로 학생들도집짓 세에닷고모집에 응한것이올시다 그런데급기야 입학후그들의 태도는종교가로서 혹은수양부학생으로서 능히행치못할 행동을 감행함이 아니라 당연히 행하여야 할일까지 행케아니함으로 당국자인 우리는 부득이그들을 퇴학시키기에 이른것이올시다 그리하야 그들은 수가만흔것을 빙자하고도처에다니며 본부의 낫분소문을선뎐하는듯하나 이는결코세상에서 밋지마실 일인것을말슴하야둡니다』하며 분개하더라



◇……사진은조도뎐대학군이상며와차 홀며조대군센터리상백군의[illegible]

債鬼에게졸려 縊首自殺한商人

함남안변서신용잇는상인 빗쟁이에게졸려목매죽어

원적을함남안변(咸南安邊)에두고 강원도양양군 강현면룡류리(江原道襄陽郡降峴面沕溜里)사십○번디에 사는 조화식(趙化植)(四五)은 작년십이월이십칠일 하오열두시경에 자긔집 머늘보에목을매여 자살하얏다는데 자살한원인은 근본유리 표박하다가 지금으로부터 이십여년전에 그곳에와서 장가를듬후 본래성질이순직하야남의신용을어더장사를하든중 영업에 실패를하매 엽치업시졸으는채귀(債鬼)와십여명의 가솔을 먹여살릴길이가이업서그와가티한것이라더라(양양)

作戲太甚한 長連不良學生

부녀자에까지

여러가지못된작난 황해도장련읍(黃海道長連邑)학생계에는 근자에 풍긔(風紀)가극도로 문란하엿스나 학교당국에서는 그에대하야 별반방침을생각하지안코 또한 학부형측에서도 여하한감독이 업슴으로 일반사회 에서는 여론이비등하다는데 이제그중의 한례를들면 장련 ○○○학교 오학년생도중에 배모(裵某)、림모(林某)、백모(白某)、허모(許某)、류모(柳某)등은 밤이면 사오명식작을지어 밤이깁도록 거리로다니며 통행하는녀자들에게 희롱을하야 녀자들은야간통행을 할수업다하며 또한일요일이나 수요일밤에는 반듯이 례배당(禮拜堂)밧게가서는 사면으로도라다니며 유리창을두다리는일과 례배보고가는녀자들에게희롱건등하는일이며 별괴괴한행동이 만흔중 더욱지난 이십칠일밤에는 동부리(東部里)엇던 술집에가서 문구녕을뚤코 드려다보다가 나종에는 방안에돌까지 드리처방안에 안젓든사람들은 일시대소동을 하엿다는데 이외에도 여러가지 작희가만타하야 그와가티여론이 놉흔것 이라더라 (장련)

四名의馬賊團

동포의집을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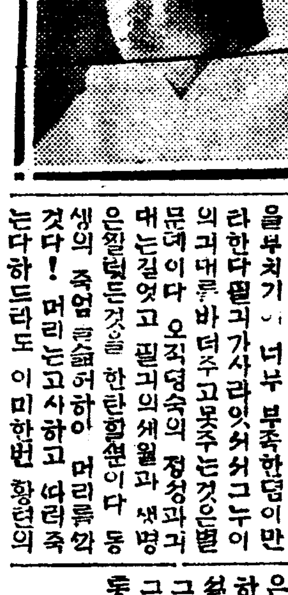
지난 이십구일오후칠시경에 무순(撫順)서 약삼십리 가량되는 소협박(小夾帨)이라는곳에 네명의중국마적(中國馬賊)이 나타나서 그곳에거류(居留)하는 윤명근(尹明根)외의 네집을 습격하야각각권총(拳銃)을 쓰내여가지고 한부도위협을하고 권긔윤명근에게서양(洋)으로륙십여원과 그외에 네호、며하야 회중시계(懷中時計)두개를강탈도주하얏다더라(봉텬)

셔나려다가못셔난 定處업는放浪길

정성을바처려야바칠곳업서 허무한세상을원망하엿다

愛弟잃고斷髮한美人(二)

덕수(德壽)는일즉이 오래동안새상의 천대를바더가며 이기생노릇까지하야 빗업는 세월을보낸것도 역시사랑하는 그동생필긔(弼基)를위하야자긔의몸을희생에 바친것이다 그러나그것만으로는 사랑하는동생의 원대한포부를 어더주기가 부족하야다시 기생노릇을 하랴하엿섯다그러나 사랑하는동생은 이미이세상에 잇지아니하매 돈도정성도모다 쓸데가업시되엿슴을 따라기생노릇을 할필요가 업시되엇다 그것은자긔의몸을희생에바치고 세를긔필하엿든사랑하는동생이 이미이세상에잇지아니한까닭이다그리하야덕수는눈물이산가려잇서도누구를위하야쓸곳이업스며정성이아모리만하도누구에게드릴곳이 업슴을 서업시슬허하야 극도의락망과 도의비관에



이르럿다 덕수는 동긔가여러형데나 자긔의모든긔대와 모든희망을 부치고잇든동긔는 필긔한사람뿐이엇다 최근에와서 그는리상의남편도

아모것도 모다 바라지아니하고오직그동생으로더부러 평생을보내랴하엿든까닭에그동생의죽엄을 더욱슬허하는 것이다 그리하야이세상모든것을긘부포기하고뎡처업시 방랑하야 얼마간마음의 위로를맛고자 떠나려다가 집안사람들에게잡히기도하엿섯다 그러나남어잇는동긔들은그의긔대와희망을 부치기에 너무 부족한덤이만타한다 필긔가사라잇서그누이의긔대를바더주고못주는것은별문뎨이다 오직덕숙의 정성과긔희의세월과 생명은쏠렷든것을 한탄할뿐이다 동생의 죽엄을슬허하며 머리를깍것다! 머리는고사하고 떠러죽는다하드래도 이미한번 황텬의 손이되고만 사람이 다시사라올리는만무한 일이지마는 그것이동긔가우에가 얼마나두려운가를증명하는것이다그리고그는더욱 세상을비관하고 원망하는일이또잇스니 그것은 자긔의사랑하는동생이 병상에서 숨을모호고잇스면서 생명이 시간을가지고다투는중에도 그형(권필가티기생노릇하던친형)은 자긔에게 동생의치료비나 청구할가두려워하야 며칠동안 그는 오래동안엇다는그것이다 그러나그는 그러케 인정업는태도를취하엿다 맹정한 세상은모다이러하다! 덕수는 사랑하는동생이 죽은것도 불상하고 쉬거던 자긔의만흔신세、바든그형이 죽어가는 생 필긔에게 그와가티 맹정히한것이 더욱원통하야 세상을 저주하는것이다 ——(쯧)——

덕숙(德淑)은덕수(德壽)이기뎡뎡함

洋靴店主人이 職工을解雇後毆打

경비곤난이라고해고식힌후 사소한말쯔테구타하여상해

원산부남촌동(元山府南村洞)에잇는원창양화뎜(元昌洋靴店)주인조성희(趙聖禧)는 지난 이십구일오후 일곱시경에 직공최경준(崔景俊)이라는 사람을 구타하야 면상에타박상을 내엿다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 드건대 권긔최경준은 작년정월부터 그양화뎜에 고용되여 지금까지잇섯는데 주인조성희는 지난십이월이십오일경에 돌연히 경영난을빙자하고 해고를식힘으로 조석이가 어려운최경준은 눈물을홈리면서도 엇절수업시 해고를당하고 말엇는바 그후권긔조성희는김학수(金學洙)라는직공을

다시채용 하엿슴으로이 경을본 최경준은 몽지섯달의엄동설한에 먹을것이업서 어린처자가 애호하는가련한 정상에홀로눈물만 흘리며 가슴만쥐여뜨드면서도 참고잇던나마지에 분함을 익이지못하야 이십구일밤에원창양화뎜으로 달려가서 조성희에게 무리해고하엿슴을 힐난하다가 그와가티 마젓다는데 조성희는 직공되는 최경준이가 먼저 자긔를때림으로 그가티 되게된것이라고한다더라

『治療費와 解雇手當을 반드시밧자고』

洋靴組合決議

원창양화뎜(元昌洋靴店)주인조성희가 직공 최경준(崔景俊)이를무리해고할뿐만아니라구타까지하엿다함은 별항보도와 갓거니와 원산양화직공조합(元山靴工組合)에서는 지난일일오후칠시에 원산피혁상뎜(元山皮革商店)안에서 긴급임원회(任員會)를열고 여러가지로 토의한결과 조성희에게 세가지를 요구키로되엿다는바 결의사항과 요구조건은다음과갓더라

◇決議

元昌洋靴店主人趙聖禧가本組合員崔景俊을無理解雇하엿슬뿐만아니라毆打까지하엿슴에對하야다음과가티要求하되一月二日內로不應하는時에는積極的行動을取할일

◇要求條件

一、一個月分收入에相當한解雇手當金을支拂할일

一、解雇한날로부터病이完治될때까지從前과如히賃金을支拂할일

一、全治될때까지의治療費를擔當할일

店主에게警告

元山勞働靑年會는 위원이즉접가서

원창양화뎜(元昌洋靴店)주인조성희(趙聖禧)가 직공을 무리해고할뿐만 아니라 구타까지하얏슴에대하야 원산로동청년회(元山勞働靑年會) 에서는지난이일에 그의횡포한의 반성을촉키위하야 경고문을 보내는동시그회에서위원이즉접출장경고하엿다더라

元山印靑도奮起

횡포한행동을 털더히응징하자고

권긔사실에대하야원산인공청년동맹(元山印工靑年同盟)에서도 지난 이일에 긴급상무집행위원회를열고 다음과가티 결의하엿다더라

◇決議

一、元昌洋靴店主人의橫暴한行動을膺懲하기爲하야警告할일

一、靴工組合의要求에不應하는時에는靴工組合과步調를一致하야積極的行動을取할일

強盜罪로 富豪거러告訴

돈바드러와서 소를르어갓다고

양덕군양덕면디경리(陽德郡陽德面地境里)에사는장효순(張孝順)(四三)은십이월십삼일에 본면수암리에사는 부호로 굴지하는 최문기(崔文岐)의장남 최재언(崔在彦)(四四)을 상대로 강도죄(強盜罪)로 평양검사국(平壤檢事局)에 고소를제긔하엿다는데 그내용인즉 대정십삼년팔월열일에 권긔장효순이가 부호최문기한테서 일금백원을 채용한바 금년오월경에 다시계약서(契約書)를작성하야 금백원을 금년음력십이월삼십일에 한부하기로하엿는데 채권자최문기는 엇더한생각이 낫든지 지불긔한(支拂期限)이되기전에 자긔아들 최재언이를 채무자장효순의집으로보내여 주인은 업고 부인들만 잇는데 소(牛)한필을 곳 일백오십원가치되는것을 쓸고가랴고하엿다 부인들이 만류하엿스나 최재언이는 종시듯지안코 소를 쓸어갓다고 그와가티강도죄로 검사국에 고소한것이라더라(양덕)

國境의慘劇!

新義州稅關員被殺

일월일일오후여섯시경에 중국인이륙혈포로쏘아서

지난일월 초하로날 오후여섯시경에 신의주세관(新義州稅關) 허헌(許鑑)씨는 일중국사람에게 총살(銃殺)을 당하엿다는데 허헌씨는 지난전 월초하로날이 공교히 당번(當番)이 되기때문에 종일 토록 안동현(安東縣)으로 오고가는 내외국(內外國)사람들의 행리를 검사하며 혹은밀수입품(密輸入品)을 가지지아니 하엿는가하야 몸도수색하고 잇던중어느듯해는 서산에떨어지고 압록강(鴨綠江) 얼음우로부터 오는찬바람은 살을어이난듯이 치운 오후여섯시반쯤되여 안동현(安東縣)으로부터 압록강우으로건너오는 이상한중국인 수삼인이 세관앞으로 착하랴 할즈음에 허헌씨는급히나아가서 중국말로 『무엇을가젓느냐』하고 몸을수색하려 할때에 그중국인은 『포켓트』로부터 륙혈포를 쓰내여머리를쏘아 당장죽사케 하엿는데 이총소래를듯은 소사(小使)가빨리나가본즉 이와가튼참살을 당하엿는고로 그마즌편에잇는 경찰관파출소(警察官派出所)에고발하엿스나 그일을행한중국인들은 벌서압록강 얼음우으로 다라나버렷슴으로 경관들은급히 뒤를따라 애를쓰고잡으려하엿스나 밤은캄캄하게 어두어가기때문에 종시체포하지 못하엿다더라(신의주)

密輸入이發露된中國人의兇行

疑問의美人屍

어떠한자에게 칼을마저죽어

의주군 위화면 상단동(義州郡威化面上端洞)일백팔십번디 박사직(朴思直)(三六)의 장남되는 박장손(朴長孫)(九)(假名)의안해 리씨(李氏)(四四)라는 미인은 지난달이십일에 그곳에서 건너다보이는압도(崔島)에 자긔시부박사직 이와 사모리씨와시아우되는박모(二三)와남편까지도합 네사람이 함의 강냉이 마당질을 갓다가권긔명중 세명은 상단동본집에도라가고 자긔시부와 두사람이고성

련못속에서 小兒屍體發見

군위군에서

지난십이월이십륙일정오경에경북군위군군위면사직동(軍威郡軍威面社稷洞)알뎐못가운데 어름을위에서동리 아이들이 어름을 지치다가 나흔지며칠안되여보이는어린아이의롭산긔로허리를 이고 큰놀를 달아서집어너흔시데를발견하고 동리어른에게 말하엿슴으로도 즉시 경찰에급보하여경관이출동검시한후범인수사에착수하며 근처과부들을 모다 묘사하는중이라더라(의성)

◇閔氏特志 민영휘(閔泳徽)씨는 서대문밧 양로원(養老院)에현금백원을보내고 양로원비에써달라하엿슴으로양로원에서는매우감사한다고

종명자

▲신년이되고보니길가에 나서면 눈에뎌이는사람이모다도소주!취한것갓다▲신년도질겁고도소주도조치만은이일등며문러오간수다리미테는도소주에 취한 일본량반한분이 술도취하고 길도밋그러워서비틀거리다가그만참혹히떨어져 죽엇다고▲신년새해일본 어듸서는화재보험 금삼천원을 사취하고자 제집에다불을질은사람이잇섯다고▲새해는닥쳐오고 빗쟁이는졸으니 싸아마계궁책으로 그런것이겟지▲일로보면생활난은 예제업는모양이야 남들은엇더니 엇더니해도제집에 불을노은그사람의 속이야오죽하엿슬라구

本人從來使用楕圓形印章紛失故更刻使用 京城府獅寶洞二三二ノ二 李容九

◇◇日本빠스켓뽈界의覇王◇◇

早稻田大學軍을招聘하야

大籠球競技 朝鮮覇王과

四日＝對在京西洋人軍一回戰
五日＝對中央ＹＭＣＡ一回戰
六日＝對在京西洋人軍二戰回
七日＝對中央ＹＭＣＡ二回戰

會員券 指限 ◇下層座席百人一圓 定劵하야 ◇上層三百人 限 五十錢

每夜七時半부터靑年會舘에서

主催 中央基督敎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

◇◇오라！偉觀일國際競技場으로◇◇

謹賀新年

纛島面事務所 職員一同

往十里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高陽郡纛島面西纛島里 盧輿弼

西纛島里 李愚玄

高陽郡纛島面西纛島里 東明精米所 主 李愚明

纛島金融組合 職員一同

往十里驛前 光東自働車部

高陽郡纛島面東纛島里 精米業 金億福

高陽郡漢芝面梨泰院里 朝陽靑年會

高陽郡漢芝面梨泰院里 姜大熙

高陽郡漢芝面梨泰院里 李鴻淳

高陽郡漢芝面梨泰院里 車輛稅納稅組合

高陽郡漢芝面梨泰院里 米穀商 李春石

高陽郡漢芝面梨泰院里 米穀各種雜貨 李文根

高陽郡漢芝面梨泰院里 各種雜貨商 金春成

高陽郡漢芝面梨泰院里 陸鍾謨

大田春日町一丁目 成本洋服店 主 成樂俊

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 本社 江原道鐵原 出張所 京城府外往十里

大田郡儒城面伏龍里 趙鍾奎

大田郡儒城面伏龍里 安正中

大田郡儒城面市場 理髮所 主 尹甲重

大田郡儒城面甲洞里 成洪鎬

大田郡儒城面甲洞里 女史 宋仁淑

大田郡炭洞面秋木里 李圭男

大田郡儒城面書記 姜錫熙

大田郡柳川面月坪里 朴鍾德

大田郡鎭岑面事務所 職員一同

大田郡鎭岑面鶴下里 朴在華

大田郡鎭岑面內洞里 宋寬淳

大田郡杞城面黑石里 金潤培

大田郡杞城面黑石里 李升圭

大田郡杞城面黑石里 金永臣

大田郡炭洞面長 金瓛中

大田郡炭洞面長洞里 李時雨

大田郡炭洞面長洞里 醫生 金學周

大田郡炭洞面長洞里 閔鎏稿

大田郡儒城市場素麵製造所 主 尹陽善

大田郡儒城市自轉車修繕及販賣 主 金忠鉉

大田郡儒城面新興里 李相賢

大田郡儒城面九城里 金千勳

大田郡儒城面長 朴憲周

大田郡儒城面甲洞里 宋在哲

大田郡儒城面鳳鳴里 宋欽朔

平北江界城內 泰昌商會 主 李定垚

西鮮自働車商會 江界支店

平北江界邑內東部洞七七〇 江界精米所 主 高泰翊 姜完熙 電話一一四番

平北江界城內 綢緞布木 日用雜貨商 委托販賣 高泰翊商店 電話一一二番 電略(コ)又ハ(ゴウ)

平北江界城內 綿布御商 李福鉉商店 電話五一番

平北江界邑內 兄弟醫院 院長 金基磐 電話九番

平北江界邑內 綿紗布商 金龍宗商店

平北江界邑內東部洞 貿易商 沈汝三 電話六七番

平北江界郡江界面 協議員 田時恒 長電話五二番

江界城內 鴨江寫眞館 主 田虎英

平北江界邑內 各國時計 貴金屬 裝身具 蓄音器 早川時計店 電話六六番 振替京城一〇五二三

平北江界郡江界面事務所 職員一同

平北江界邑內 布木商 金鳳朝

江界郡江界邑內 大正自働車運輸株式會社

平北江界城內 貿易商 東信商會 電話一一九番 電略シ又ハ(シン)

平北江界城內 諸官衙御用品 公私立學校用品 和洋家具 朝鮮白銅器 江界木工所 主 金義濟

平北江界邑內 梧山醫院 醫生 崔錫敏

高陽郡纛島面東纛島里 延永模

[illegible]魚進勞學(撫川) 撫川郡西面會

川面長은元來公共事業에貢獻이多大하든바今年宜川郡水民들의窮狀을見하고該地住民 하게成和되엿슴으로該地住民

가뎡부인

가뎡평론

새해를 마지하여서 (一)

安民世

◇이사이의조선처럼어수선한사회는업습니다 꼿꼿갈갓지못한뒤숭숭한조선이라고이름짓고십습니다 국경디방에서는부작단의 습격이 연방생기고시골에서는 소작농민의 쟈홈이잇고 서울파다른도회에서는 로동하는이들의 동맹파업이닐어나니이것도매우어수선한일입니다 이러한 일은조선사람의 경제뎍및 사회뎍사정이 매우어수선하야 한아에몰어가지못한리유입니다정치뎍으로 사회뎍으로한아에 몰어가고 또한아로 통일(統一)되려면 그는 조선사람네다수의원하는바 희망대로 사회가새로조직되지아니하면 실현될수업는문데입니다 그러나지금이문데를길게말할경황이업슴니다

◇정치뎍으로 사회뎍으로어수선한현상은우리보다면갑갑이나항복스러운생활을하는나라에서도거의엇새업시생기는일이니 여긔에인생으로서 항상수임이업는 싸움이잇는 것입니다 그러나우리의 레사의생활 곳이른바일상생활(日常生活)에관하야 우리는매우어수선한 생활을하고 잇슴니다 그리고 좀신식으로 눈뜨면눈뜰스록 더우어수선한 분수가더심하여집니다 출입할 적에는양복 집에와서는 조선옷을입는것가튼것은 그의 가뎡커한 자이지마는 이러한실례는모든의복 음식 거처 의식습관까지도 모다그러한 것을이루다 들어말할수 업습니다 그중에도 우리의 련면스러운사상 감정을발표하는긔관(機關)인말에관하여서도 일본말을석지아니하면 말할수 업는것가티되는것은 아마 이사이의 조선사람들의 큰병통이될것입니다

◇이러한어수선한사회사정을가장잘대표하는것은조선사람의서울딍실지내는일입니다 구력서울을직히어여전히김싸서올을위하야모든공식의절차를다합니다이것이금전거래하는데까지 영향을미치어서 남과거래하는이가 두접의 고롱을당하게되는바 이지마는 그는다만 남과거래하는데만 아니라 그의모든경제상 곳가뎡생계상에도 적지안흔 손해가되고 그의정신상손실과 맛부용한 정력의소모(精力消耗)라는뎜으로보아서 전민족뎍으로나 각활뎌에는 매우큰손실이되는것 입니다 이는곳민족뎍으로 사회뎍으로 급히개량하기 단행하여야할것입니다

명절쇠레주의할 어린이의음식물 [三]

女醫 劉英俊

동양어린아이는 쌀、수수、생선과고기 닭고기가튼것을 네살이면먹이지마는 서양사람은 네살에는 육죽중에 구운빵、코코아、밀크스ㅡ쨈을 너허먹이며 곡물(穀物)에는 아이스크림、가스타ㅡ、등을너허먹인다 우리는아츰에는 쌍츰잘거어먹이고 점심과저녁에는 무른쌍 를 먹이는것이조코 식혜가튼것도조타

고기、생선、알가튼것을네살된아이라도 먹이지안는일이잇스나 일반으로 만두살을지나면 하로걸러서 알한개와고기생선 세고기흙을 십오몬메쯤 먹이는것이조흐니 고기가업슬때에는

『유즙』(乳汁)과알로보충할것이다、면커말한것과가튼것을속드리잘일반으로해롭다 알은 너부삼거쉬웁다 탄기름은 어린아이에게타서구드면성분(成分)이변하기억지아니하거나 거죽에 기름이나 너무익히거나하는것은 조치안흐니 즉 소화가잘되지못함으로 반생반숙하야먹이는것이 조타 실과는향긔가도는것과 염분(鹽分)을먹음은것과 그밧게 자양분이만흔것을가리여먹어도하두에

『한번』식은줄것이다 실과즙이나실과로만든음식이나 구은능금 구은배는 어린아이에게 매우뎍당하다 실과를줄때에 반드시 섭질을벗길것이오 밥먹은후에나 군음식으로줄것이다

과자는 우에도 말하엿거니와 식욕을 업시하는것이오 설탕은매우유익한것이나 음식을 대당하야먹으면 도로혀해롭다 설신은 실과에쐬어먹거나 홍차(紅茶)에느어서먹는것이조흐나 다섯살부터 여섯살까지에는 소화긔(消化器)와소화력이점점

『발달』되어고기라도 등히어른들과가티먹을수잇스니 조흠식크게 쓸어주며『코코아』『초코렛트』가튼것도 조흠식주기를시작할것 이다 『카피』가튼것은분량을매우적게하야 물게타서먹일것이니 요컨데 어린아이기의음식은 할수잇는대로 자극성(刺戟性)이 적은것으로 료리를뎍당히게 할것이다 초가튼것은 먹이지 아니하는것이조코『굴』노즙 만들어 어린아기을나게할것이며 초는 어린아기의위(胃)와장(腸)의소화력 해하는고로 차차 이가리하야

『어른』의음식 달아가게할것이다 열나섯살이지라도 아조 장성한어른과가튼음식을 먹일수 업는것이요 특히어른보다 어린아이에게는목마른증이더심할뿐아니라물을만히먹으라고하는특성이잇다그런때에 음식에업는 물만히넛는것은극히해롭고소금은어린아이테중(體重)한『그람』에〇.〇五『그람』을 비례하야먹이면 충분하다 다섯살이나 여섯살먹은아기의테중은 대개다섯관이나 여섯관쯤 되는고로 한『그람』혹한『몬메』의 사분지일이 잇스면 하로의

『분량』으로족하고조금이라도넘으면목마른징이 생긴다 물 항상먹을식량보다 더마시게되는고로 혈중분염(血中食鹽)까지 가리모혀오축、셕、으로나오게 된다 아기가난지 삼년이되면 두살써에먹든것을 먹게하는것도 조흐며 네살이되면 두살이나 세살될적에 먹든음식을 먹는것도보통이라하겟다 지면관계도 오날은이만그치나 후에긔회를 보아군음식에대한주의를쓰랴한다

흥미가진진한 각국의정월놀이 [三]

일본은『가루다』『회가대성황』 음식은『도소사게』『오조ㅡ니』

◇일본

일본의 정월놀이는 우리가해마다 익히보는바이어니와 먼저며문부터 치레합니다 대문이업는집에서는현관(玄關)밧기라도치레를합니다 별것은 업지요집집마다

『솔가지』(門松)를 쏫고문설주에 조희와집(紙繩)을 맷읍어매어다는것뿐입니다 그리고『도고노마』(골방)에는평소에도일본사람들이 가장 위하는텬조대신(天照大神)을 모시여 노코매일아츰마다 두손을 고추들고청하는 풍속이잇습니다 정월초하로날은 여긔에 큼직한떡세개와 술과굴을노코여노코 정성을다하야 새해의복을빕니다 이것을『오소나에』(御備)다고부르는데만일 이것을 도적하야먹는이가잇스면 그사람은 무엇에서던지동티가 난다합니다 텬조대신압헤 절한후에는 사방으로돌려며이고 절을합니다 어른이나아이나 니러나는대로 곳그러케합니다 이것이곳사방배(四方拜)올시다 아츰상은밥을폐하고『오조ㅡ니』(御雜煮)(찰떡국)를먹습니다 검정콩을 삶머서먹고뱅어들지커서 먹는것도 풍속중에한아이며『도소사게』(屠蘇酒)를 누구던지 석잔식은반드시마시는것이올시다『도소ㅅ게』는조선사람들의

『귀밝이』술이라 일컷는것이요 그외에 여러가지음식이다각각 깁흔의미가잇서서 먹는다합니다 일본사람들은 일년에한차례식 정월명졀이외에는 집에서 떡을하지안는으로 떡을만히하여서 말려두고 일년동안올먹는다합니다 각가뎡에서는 정월한달동안 떡국과『오시두고』(팟죽에 찰떡을너흔것)를만드려먹으며『가루다』회를열고소년소녀들이 흥겹하야놉니다일본의『가루다회』라고하면참굉장합니다 방에새여가며 놀고 멋칠식하진에서 묵어가며놉니다 흑은동경대경도(東京對京都)、흑은동경시내서만이라도 선수들을 뽑아서 가루다대회를열고 컴컨을함니다 가루다대회로말미아마 알지못하는 청년남녀가 서로알게되고 친하게되고 그로부터차차사랑이 생기여 혼인까지하는수가만습니다 한참동안 일본편디를

『뒤떠들』든『곤지기야사』(金色夜叉)도 가루다회에서오미야『御宮』가『도미야마』를 맛낫고 그때에서고와『도미야마』의『반지가『오미야』의눈을호린것이올시다 그럼으로 일본의가루다회는 청년남녀의 사랑의싹을 어나게하는 유일의긔관이라고도 할수잇습니다 아이들의작란으로는 사나이들의 연뛰기와계집애들의『하네쓰기』가대성황이올시다ㅡ(끗)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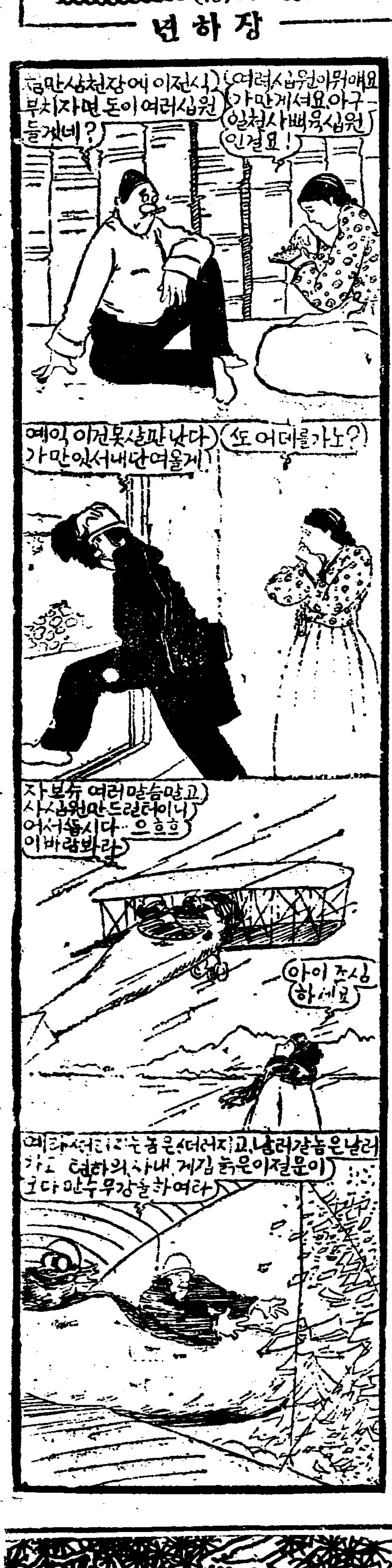
의상

문、커는어려서부터 근시(近視)인데 금년에는안경을쓰기시작할가함니다 엇던 모양이조흘가요? 체엄굴는 매오동금니다『세루로이드』가엇더렛슴니까(근시인녀자)

답、밧금학교에 재학중인 생도가아니면 무레안경이 점잔해서조흘듯합니다 모양은 보통타원형(楕圓形)이조습니다근래에 주국디방에서는 녀자들이 둥근『세루로이드』테안경(로이드안경이라고도함)을쓰면 그것이눈접과 조화되아보기조키도하나 이것은 컴잔치못합니다 그리고눈의시력(視力)은 안과의사에게 검사해보는것이필요합니다(일긔자)

멍텅구리 가뎡생활 (73)

년하장



(一) 칠만삼천장의 편하장을 (二) 우편으로 보내다가는 못살겟다고 (三) 비행긔우에서 훨훨써언지며 (四) 텬하사람들은 만수무강하라고

新刊紹介

◇新少年 범과금자(童話) 少年新聞 쎄마귀밥된상사바이올린天才 新年特別懸賞募集等兒童讀物多數 發行所 京城府嘉會洞二十三番地新少年社 振替京城一二八二二番 定價十五錢

小說 靑衣夜叉 청의야차

金浿雲譯

八〇

그는대답하엿다ㅡ『비밀을 숨기기위하여서는 그만한 사소한거짓말을 엇질수업섯슴니다』

『남죄의비밀을숨김이지오?』

그는 그러타고 머리를 쯧덕쯧덕하엿다

『올아 그런데 오늘저녁에 나에게 말슴하고저 하시는것은 무슨일입닛가?』

그는 손가락에씨인 반지를 만지면서 잠시동안 아모말도 업시 잇섯다

『당신에게 너 그러운 조력을 청하고저 하는것입니다』

『엇더한일에말슴입닛가?』

『이전과가튼 그런일에』

『이전과가튼일!』나는 깜작 놀라서 부르지졋다ㅡ『나는 이제까지 당신을 조력하여들인 그런긔억이 업는데……』

『아이참!』그는 부르지젓다ㅡ『당신은 긔억력을니저버리시엇서요? 앗가말슴한 그러한회합(會合)에 당신을기다리든사람과 교섭하신일을 니저버리셧서요?』

『당신이 하시는 말슴은나는 도모지 알수업습니다』하고나는 침착하게 말하엿다

『히론씨!』하고 그는또부르지젓다『당신은 정말로 정신에 이상이 생기지안엇서요? 그러면『콕크』가하던말이 참말임니다 그런』

『나는 결단코 미진사람이 아닙니다』하고 나는 온화하게 말하엿다 『사실을 말슴하면이 날밤이후로 무슨일을 몰론하렷습니다 나는 북편진 어느고긔억력이 업서젓습니다ㅡ킹쓰거리 어느집에서 엇던친구와 담배를피우든 그날밤이후로』

『무슨일을 몰론하고 긔억이 업다니오? 아이그 그런이상한일이 어데잇서요』

『당신이 이상하다하시면 그려면 나에게는 얼마나이상하게 생각이되겟습닛가! 나는 정밝 사실대로 말슴을하는것임니다 하낫가 나에게 심부름군을 보내시엇다는 그목뎍을 설명하여주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륙당을하시는줄로밧게는 생각되지안어요』하고 그는말하엿다ㅡ『조금도 그일을몰으시다니 그런일이 잇술리치가 업슬것가래요』

『내가 무슨볼로 그사람들과 맛낫는지 나는정말로 긔억이 업습니다』

『정말로 그러시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말슴하지오』 그는말하엿다 『위선첫재로 당신께서는 우리정부와 재정상의거래로인하야 막대한 리익을 엇게되신것을 인정하실줄로 암니다』

『나는 영국정부와 재정상의 거래를하엿다는 긔억은 조금도업습니다』하고 나는대답하엿다

『부르가리아정부말슴입니다』하고 그는설명하엿다『당신께는분명히중개자를통하야、막대한 특허권(特許權)이 당신의 수중에 들게되것을 아실줄암니다ㅡ『바르나』의 선거권(船渠)이라든지『쏘피아』의 뎐차권(電車權)이라든지『테일바』에서『셜네아』국경까지의 텰도권(鐵道權)이라든지』

나는『옛지』가『부르가리아』의『뗴른워낸드』 공작으로부터 밧다는 특허장(特許狀)을 보이든일이 잇든일을 어렴풋이 생각하엿다

『정신을 회복하든날ㅡ변리를 써커나오든날ㅡ무슨류가튼것을 나는보앗슴니다 그러나 별로히 류의하여보지안엇슴니다』하고 나는대답하엿다

『그러나 엇잿던『부르가리아』로 투자한 영국의자본이 막대한리익이 생기고 또한그것이 대부분은 당신의수중으로 들어오게된사실은 인정하실줄로압니다』

『그런듯합니다』하고 나는대답하엿다『그런데 내가 그특허권을 어든것을 당신의진력으로 그러케되엇나요?』

『그럿슴니다』

『그러면『부르가리아』의 대사(大使)라는것은 즉 당신이심닛가?』

『그……그럿슴니다ㅡ 당신이 그러케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알앗슴니다 오늘저녁에 당신이 나에게청하고저 하는것은 재정상의 원입니다 그려?』

『그럿슴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바라보앗다 그가『부르가리아』에서 그러한지위에잇는 부인인줄은 나는 꿈에도 생각지못한 일이엇다

社告

一、支局의名稱 平壤支局

一、支局의位置 平壤府下水口里一六八

一、支局員의職氏名 支局長 金廣植

右와如히平壤支局에對한一切를變更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옵소셔

朝鮮日報社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옵소셔

總務兼記者 朴善一
記者 李熙闡
記者 金熙得
記者 張熙淳
顧問 金經乾
顧問 朴東錫
顧問 李世悅
顧問 鄭甲胤
顧問 黃崇永
顧問 吳璸殷
顧問 金仁永
顧問 羅基協
顧問 洪基璜
顧問 金景彬

朝鮮日報平壤支局白

◇天氣豫報 晴一時曇
◇溫度 三日正午 〇八、〇
◇比較 一二日最低 〇七、四〇
◇日出前七時四九 晝間九時三九
◇日入後五時二八 夜間一四時二一

謹賀新年

金堤郡白鷗面長 全羅北道評議員 金演植
金堤郡竹山面事務所 職員一同
金堤郡孔德面南□里 金淳箕
金堤衡平社 社長 元永彩 會計 元永昌
金堤郡下雙面長 金泰益
金堤郡廳
金堤郡方頃面萬頃里 郭幸鎭
金堤東洋農業株式會社支店
金堤郡扶梁面事務所 職員一同
金堤邑 種商 子明淵
金堤公立普通學校長 牛島信男
金堤本町 文化組合三南印刷所 白昌欽 電一〇五
金堤郡水流面院坪 米穀商 林興吉
金堤驛前 新興旅館 溫樂昇
金堤驛前 三義司法代書所 羅元燁
金堤郡孔德面孔德里 白南烈
金堤邑 高等理髮館主 趙東湜
金堤本町 照俠商會
金堤驛前 運送部 趙在軾
金堤郵便所長 近藤新一郞
金堤郡白鷗面芙蓉里 金俊植
金堤郡白鷗面月鳳里 崔璨澈
金堤郡金溝面月田里 溫聖洞
金堤郡金溝面郵便所長 星忠平
金堤郡龍池面臥龍里 金永吉
金堤東洋水利組合 韓用大
金堤邑 司法代書人 鄭寅學
金堤驛前 李箕鎬
金堤邑 黃成玟
金堤郡孔德面田龍里 李承熙
金堤邑 羅甲淳
金堤郡金堤面新豊里 無名氏
金堤郡金堤面新豊里 裵最元
金堤郡白鷗面月鳳里 崔芝洪
金堤郡龍池面於村三 尹滋益
金堤郡龍池面臥龍里 金學仁
金堤郡靑蝦面官上里 姜珊容

金堤郡孔德面事務所 職員一同
金堤郡月村面立石里 文孟德
金堤郡芙蓉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金堤郡孔德面回龍里 文龍鎬
金堤郡孔德面黃山里 李寬浩
金堤郡靑蝦面月弦里 鄭漢謨
金堤郡白山面 面長 崔圭祥
金堤郡白山面興福寺 主持 金極仁
金堤郡月村面立石里 李文求
金堤郡孔德面孔德里 李振衡
金堤郡靑蝦面東之山里 朴明淑
金堤郡芙蓉公立普通學校 嚴翼升
金堤郡水流面星湧里 金萬基
金堤郡草處面從德里 洪鍾碩
金堤郡金溝面金溝里 李爀來
金堤郡下離面都壯里 金丙燾
金堤中學期成會
金堤青年會
金堤邑內 洪熺種
金堤東拓收納所 金庠基
金堤邑內因元亨商店 辛亨
金堤邑內 金光丞
金堤驛前 朴南燮
金堤郡金堤面新豊里 金元基
金堤孔德面回龍里 李義相
金堤郡萬頃面萬頃里 白基燦
金堤郡萬頃面萬頃里 郭重根
金堤院坪金融組合 金鳳現
金堤驛前司法代書人 羅琇鉉
金堤郡雙龍面西鳳里 趙炯浴
金堤郡水流面金山醫院 洪義伯
金堤郡孔德面末里 宮義
時代日報金堤支局
廣州郡彦州面龐谷里 李秉秀
廣州郡彦州面狎鷗亭里 全尙淳
廣州郡彦州面狎鷗亭里 李元淳
廣州郡彦州面事務所內 李完默
廣州郡彦州面龐谷里 曹喜復
廣州郡彦州 面長 朴光禧
廣州郡彦州面新院里 金鍾根
廣州郡彦州面內谷里 洪淳旭
廣州郡大旺面細谷駐在所 洪在燮
廣州郡彦州面淸潭里 李淳儀
京城昌信洞六二六 李澤承
廣州郡上一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廣州郡中垈面石村里 醍醐教會朝鮮本部 白井善弘
廣州郡松坡公立小學校 八丸正吉

廣州郡中垈面文井里 廣明青年會
廣州郡松坡 田中宗吉
廣州郡松坡元寶製藥所 久保右衛門 尹相贊
廣州郡大旺面事務所 權榮植 李振永 全世鎭 申升均 李伯淳 李鶴鐘
廣州郡松坡公立普通學校 十河官太郎 金鎭宅 李道淳 潘貞輝 趙克相
廣州郡大本山奉恩寺 住持 羅晴湖 法務 金性玩 監務 姜性仁 書記 張璟敏 監事 朴心月
廣州郡中垈面 職員一同
朝鮮雄基 貿易商 範多商會支店 電話一四二番
咸北雄基港 東興釀酒所 主 金魯燮
咸北雄基港 朝鮮土産物、綿布、雜貨、米穀、雜穀輸出入商 共榮組合 電話一二八番 電略(ヲ)又(キヨ) 私書函第七號
咸北雄基港 (吉)票ゴム靴各種製造直賣 境護謨雄基支店 工場神戶市若松町
咸北雄基港 海陸物產 委托賣買 與醸酒業 東洋商會 電話一二四番 電略(ヒロ)又(ヨカ)
咸北雄基港 布木雜貨 劉達富商店 電話一二七番
咸北雄基港 和洋菓子製造販賣 萬成堂菓子店 主 朴基順
慶源古乾原市 布木雜貨 泰興商店
咸北雄基港 洋靴及經濟靴 財布及球製造並付屬品販賣 昌興洋靴店
朝鮮咸北雄基港 貿易商 李東彬商店 電話一三番 電略(ヒロ)又(トウ)
咸北雄基 穀物貿易 素麵製造 源興商店 電話一〇七番
雄基港 呂南燮洋服店
雄基港 司法代書人 金泰憲事務所

雄基港 書籍雜貨 三星商店
咸北雄基港 黃九夏
咸北雄基港 陶磁器、鐵物商 協信洋行
咸北雄基港 各種書籍及古物雜貨 崔鳳鎬商店
咸北雄基港 各種書籍及新舊販賣 博文堂
長城郡森溪面社倉里 醫生 洪承烈
長城郡黃龍面玉井里 金道洙
長城郡 北二面職員一同
長城面聖山里 司法代書人 柳寅秀
長城郡長城面岐山里 學校評議員 吳鎰圭
長城郡西三面 面長 金喆煥
長城郡長城面流湯里 金炯鳳
長城郡北二面莘坪里 金相奎
001556
長城支局顧問 長城郡長城面流湯里 金炯國
長城郡南面 評議員 奇致燮
長城郡森西面紅亭里 白鶴圭
森西面職員一同
長城郡北二面莘坪里 金相熇
長城郡北一面新興里 長春醫院 主任 朴成培
湖南線新興驛前 新炭、材木、外米、原鹽商 金奎煥
長城郡北下面 白羊寺教務所一同
淳昌郡福興面龜岩寺 住持 金鍾悅
長城面職員一同 電話三六番
長城郡參原面永洞 前參事 車日燁

長城郡 北一面職員一同
長城郡森西面紅亭里 白麟圭
長城郡黃龍面月坪里 金永信
長城郡 東化面職員一同
長城郡黃龍面玉井里 鄉校職員 金永哲
長城郡珍原面永洞 珍永物產販賣所代表 金錫圭
長城郡長城面聖山里 司法代書人 羅元錫
湖南線長城驛前 司法代書人 林大奎
長城郡 北上面職員一同
長城郡南面三合里 林晃圭
長城面聖山里 長城邑內振興會長 孫權周
長城郡長城面聖山里 司法代書人 金斗玉
長城郡長城面長安里 邊夏淵
長城郡北上面院洞里 李乃春
長城郡森溪面綾城里 庚炳鑽
長城郡北上面德在里 金相益
長城郡北下面藥水里 藥水公普校 徐基善
長城郡北下面大岳里 私立北龍學校長 朴宗洙
長城郡北下面藥水里 醫生 房應疇
長城郡北三面□岡里 金益漢
長城郡黃龍面月坪市場 入院醫室 江山醫院 院長 孫正周 電話二三番
長城郡森西面大谷里 森西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郡聯盟單位의 道聯盟發起準備
仁川青聯懇親會席上에서 三郡聯盟代表의一致可決

仁川青年聯盟에서는二日에新年懇親會를支那町共和春에서開催하얏는데各組織團體의出席人員이百餘名에達하야大盛況을이루엇스며順序에依하야朝鮮青年運動報와、一、仁川青年聯盟의經過報告를마친後世界大勢報告와既語를發表하라다가臨場한警察의禁止로中止되고反動分子와反動團體를積極的으로撲滅할것을決議한後各團體의出席員中에서感想談이잇섯고意味津津한各種餘興이잇서자못和氣가融融한中에서同懇親會를마치고마츰當席에는江華青年聯盟開城青年聯盟等의郡聯盟團體의代表들이參席하얏든바郡聯盟을單位로한道聯盟을發起함에絕好한機會라하야當席에서準備會를組織하자는動議가有하자滿場一致로可決되야一瀉千里로即席에서準備委員을選定하얏는데其氏名은如左하다

道聯盟發起準備委員
張英(開城)河奎杭(開城)徐鳳俊外一名(江華)安基成、劉斗照外一名(仁川)

面長問題로 面民大會準備

京畿道安城郡二竹面長李達昇氏辭任과新任面長人選問題에對하야面民一般의不平이沸騰하다함은本紙에累報한바어니와이에對하야官選한新任面長李泰榮을積極的으로排斥하기爲하야來一月一日午後二時頃에面民大會를開催할터인바當地有志諸氏가去三十日午後三時頃에中華料理第一舘內에서面民大會準備會를開催하고委員若干人을左와如히選定한後同四時頃에無事閉會하얏다더라(竹山)
◇委員 高野兵藏 崔昌赫 尹璘商 鄭璘藥

梨坪公普 新築有望
期成會熱誠으로

全北井邑郡梨坪面有志諸氏는昨年十一月頃에同面事務所에會合하야同面公普校室新建築할期成會를組織하고寄附金錢額全部를沒數收捧하야郡當局에積立하기로方今交涉中이라는데探聞한바에依하면同面이一千四百餘戶에人口는八千名以上이居住하는地方으로서以來教育機關이無하야兒童들의道路彷徨은實로同面人士의一大羞恥라는覺悟로서大正十一年頃에同面長殷熙道氏와有志諸氏들이同面事務所에다面民大會를開하고財產等級마로寄附金七千圓을配定하야去年春까지收入한것이僅히二千圓에不過한外라에校室新築工事에着手치못하엿다가今番에는地方有志諸氏의加一層熱誠으로寄附錢額을沒數히收捧하기로決定하매新築할校室은不日間入札하겟다하며被選된期成會任員의氏名은左와如하더라
會長 金宅俊 副會長 殷熙鍊 幹事 李寅鎬 金東業 殷春基 李在九 金鎭洙 尹京鎬 片炳善 殷龍仁 金徹洛 會計 殷熙道 陳京煥 顧問 元稷常 李武三 諸氏라더라(井邑)

元山青年同盟
去一日에創立

今般元山青年會外南相濂君外金殷模尹爾旭李敦夏君等의發起로去一日下午七時부터元山中里革風會館內에서元山青年同盟을創立한바綱領及執行委員은如左하다더라
◇綱領
一、我等은向上團結로써徹底히階級意識의講究를期함
一、我等은我等青年無產階級의智的教養의貫徹을期함
◇執行委員 南相濂 金廷禎 韓洛叙 李敦夏 朴容大 常務執行委員 全廷濂 南相濂

堂隅里에 勞農青年創立

德源郡赤田面堂隅里의勞働青年들은勞農青年의團體가업슴을遺憾으로생각하고日夜그組織에努力하던바去十二月二十九日下午八時堂隅里에서堂隅勞農青年會創立總會를開하고規約起草委員選定其他諸件을決議하고無事閉會하엿다는데執行委員은如左하다더라
◇執行委員 朴裕秉 康元鎬 趙永祉 朴文秉 崔淳鉉 朴承□ 康鴻善 朴承模 朱秉極 康有鎬 朴承三 宋會浩
◇常務執行委員 執行委員長 康有鎬 庶務部 崔淳鉉 朴承祐 教養部 朴文秉 會部 朴承三(元山)

咸興에 組織會組織

咸南咸興邑에서咸興勞働運動을促進하며勞働運動의陣營을確固키爲하야咸興勞働동무會員은去二十九日咸興勞働동무會舘內에서議長蔡奎恒氏司會下에組織委員會를組織하고鐵工夫等工夫人力車夫車夫結卜人夫印刷工夫洋靴職工理髮夫自由勞働者配達夫洋服職工精米工夫運送夫汲水夫引鋸夫土工夫等各勞働夫를職業別로各同盟의機關을組織키爲하야組織委員을左記와如히選擧하얏다더라

龜山俱樂部 創立總會開催

慶北善山郡龜尾에서龜山俱樂部를組織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去月二十八日當地金沈洛家에서創立總會를開催하고規則通過와選擧가잇슨後에左記事項을滿場一致로可決하고閉會하엿다더라(龜尾)
◇綱領
一、我等은智的向上과實力養成을期함
一、我等은互相親睦을圖함
一、我等은眞實로써社會奉公을誓함
◇決議
一、會舘設置의件
二、運動會開催의件
◇執行委員 金基鎔 朴錫圭 朴致際 尹範華 尹尙敬 朴萬俊 金敬庸 李春榮 李範奭

錦山에서 音樂舞蹈會

京城에在한朝鮮女子苦學生相助會에서는寄宿舍擴張과嚴冬雪寒에잇서서多少의柴炭을엇기爲하야該會委員張鄭鳴女史와今秋課西鮮지에서巡廻한奏樂을하고니야이來錦하야錦山青年會東亞日報錦山支局朝鮮日報錦山支局以上三個團體後援으로去十二月二十九日下午七時半부터當地錦山青年會館內에서朴贊永氏의司會로音樂舞蹈會를開催하엿다는데背景舞蹈는大盛況으로마친後「朝鮮女子苦學生의現狀」이란題下에서鄭鋼鳴女史의講演이有한바臨席한警官의注意를밧엇다하며□仁氏의所感이有한後에閉會하얏는데即席에서義捐金이還至하얏다더라(錦山)

永川青松間 道路工事決定

永川青松間은交通이道路로써車馬의便이업스며따라서物貨의交易이至難함으로兩郡民에게미치는影響은말할수업서서每樣該道路改修를絕叫하엿스나財政關係로遲延되어오든바今般青松永川의兩郡當局과地方有志의奮起로從來의等外道路를三等道路로改修키로約定되엿다는데工事着手는今春三月頃이라더라(永川)

新豐青年發起

去月二十九日元山市外新豐里에서는新豐青年會發起會를開하고同會創立에對하야左와如히決定하엿더라(元山)
一、創立日時及場所 一月五日午後六時부터新豐里私立德成學校大講堂
一、綱領及規約起草委員 金越星 尹永夏 李基淳
一、創立委員 金越星 李成實 金承濟 朱秀漸 鄭鳳熙(元山)

新浦衡平臨總
議論不一로講散

咸南新浦衡平分社에서는去十一月一日臨時總會를開코저하스나事情에依하야開會치못하고去十二月二十五日社內에서臨時總會를開하고左記事項을決議中意見衝突로長時間을虛費하던次社長及總務는이에憤慨로閉會를宣言하엿다는바今後로는本社의指揮를企待한다더라
一、分社建築의件
一、學生寄宿에對한通牒에關한件(新浦)

潭陽의 勞靑委員會

全南潭陽勞働青年會에서는去二十七日潭陽青年會事務所內에至委員이集合하야諸般事項을決議하는中特히當地勞働組合員徐占洙君이一流富豪鞠琢鶴等三名에게但只「나라선」이坪鶴의身邊에다투엇다는罪로無數히毆打를當하야光州某病院에入院治療를바듬뿐만아니라徐君이每日勞働을하야그날그날의全家族이糊口를하든바病院治療費의困難은勿論이고徐君의全家族의生活難이極度에達함을目睹한一般組合員들은興奮의氣焰이漲天한態度로그家族의生活救助에努力할것과徐占洙君治療費로爲先執行委員一同이五圓金을보낼것과同時에慰問書發付할것을決議하고鞠坪鶴、鞠詠鉉、鞠正鉉三名에對하야는警告文을送하기로한바其他決議는如左하다더라
◇決議
一、勞働夜學에關한件
一、會費徵收에關한件
一、徐占洙君被傷에關한件
一、勞働者團體聯合總會에關한件
一、農村巡廻隊組織實行에關한件

冬雨와 交通難

◇郵安間郵便不通 慶北安東地方은冬雨로因하야洛東江이瀰水되야交通이危險하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去二十八日夜부터日氣가猝寒하야結氷되엿스나아즉薄氷임으로登氷과途舟가다不能하야大邱安東間交通은二十九日에는杜絕되엿슴으로當地에잇는齋藤慶北兩自動車部에서는氷을打開하고自動車를運行코저準備中임으로곳開通되겟다더라(安東)

松川勞學中興

安東郡臨河面松川洞에잇는臨河青年會松川勞働夜學部는其間周圍의事情으로因하야一時休學이되엿든바前부터供獻이不少하든青年有志金吉暾、金正鎬、金五先三氏의苦心活動한結果去二十四日開學式을열고熱情이넘치는開式辭와意味深長한來賓祝辭로九十名勞働學生에게만흔늣김을주엇다는데事任講師는金吉暾金正鎬金五先三氏가義務로教授한다더라(安東)

柳草農民夜學

義州郡光城面柳草洞은鴨綠江下流에介在한一島嶼로住民이千餘名을超過하는地方인데兒童을教育하는基督教經營의新明義塾과天道教經營의明習院이有할뿐이고오즉農民青年의智識을啓發식히고思想을指導할만한敎養機關이無함을當地一般有志들은恒常遺憾하든바再昨年十二月當地有志諸氏와天道教青年諸氏가奮起하야勞働夜學會를該地方天道教宗理院內에組織하고青年農民을募集教授하는바비록短期間이나成績이頗이良好함으로去年陰十月一日부터다시開業함에當地一般青年들은爭先入校하야每夜出席員이五十餘名에達하니教員은金永洛 白元奎 朴弘哲 劉敬律 朴約哲五氏가無報酬로熱心教授中이며將來더욱發展할希望이有하다더라

苗浦勞組任員會

全北苗浦勞働組合任員會는去月二十日新堰町崔圭成氏家에서組合長殷成大氏司會로開催한바決議事項은左와如하다더라(苗浦)
一、義捐金募集의件 廿一日부터募集하기로함
一、書記手當給與의件 今春外지保留하고當分間은無報酬로하기로함

◎末輝里金組創立 江原道淮陽郡長楊面末輝里에金融組合을設立한다는問案은多年이엇섯든바今月四日附로遂히許可되야創立總會를去月十四日에開催하얏다더라(淮陽)

株式界의回顧 (六)
年初歲末에大活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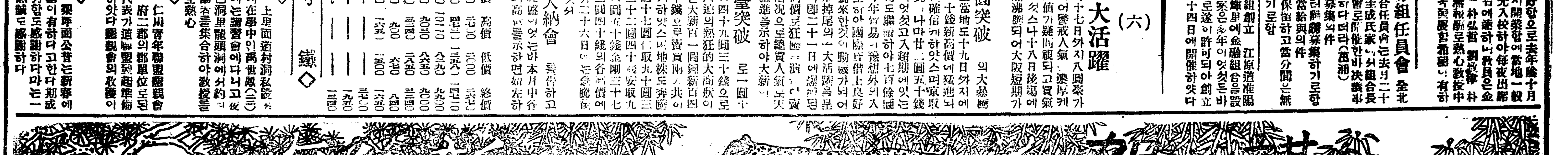
十二月大活躍

當月一日은下旬出超減으로軟弱하얏스며融資나되면多少難局을收拾하고營業을持續코저하던仲買等이融資成立無望으로憂慮이더니바重要한地位를占하얏던吉見仲買가不渡手形을出하야一日에入場禁止의處分을當하고休業의悲運에陷함을따러場內空氣가冷하야저서 **一種恐怖心** 에包圍되어其後閉散한立會가持續되엇섯는바二日에는大阪實小川이買方과鍾新을秘密히解合하야恢汁拔을본수잇드니果然三日에는鍾新이百三十八圓五十錢으로上하고大阪은九圓肉迫의好轉이엇섯고四日은仲買破綻等으로人氣가沮喪되어投賣와新規賣로京取가二十一圓臺危殆를思케하얏섯스며五日은英蘭利上으로紐育利上을斷念이엇스나 **스틸三弗高** 를보고當分利上이업슬것을推測하고別無影響이엇고京取는稍波瀾味를帶하얏스며鍾新은今期도前期同樣配當三割八分据置決定의好感도代引의壓迫으로買氣가減殺되엇고七日에는大阪新甫가大阪商事의大株大新新規賣와中國問題擴大等으로何等新味가업섯슴으로오는大阪短期大新代引四萬株懸念도잇서年內無相場說을唱키에至하얏섯고京取는드듸어一圓이썩어젓스며八日에는中國問題가俄然惡化되어奉天王인 **張作霖沒落** 의影響과二十五日限大取組拐念이濃厚한關係로스틸高에不拘하고賣人氣가膨脹되어嫌氣投가續出이엇섯스나利喰으로混戰을이루고下澁이엇스며九日에는鍾新의反撥이잇섯고十日에는又復定岡市川兩店의休業을見키에至하야大恐慌狀態를呈하고不振이엇스나上旬出超가千五百萬圓으로好感을줄뿐아니라議會는解散될것으로보아政變來를懸念이던것이憲政提携成立이豫想됨을따러 **政情의安定** 을思케됨으로金融緩漫의背景을가지고東京市場엔東新이先驅高를呈하야十日後場에는當地鍾新도百四十圓臺를突破한以後新高價에서新高價로躍騰되어十二日外지에百四十二圓九十錢에奔上을演하얏스나綿絲暴落의威脅과利喰等으로伸氣가挫折되어十五日에는百四十圓大關門割로反落을告하얏고十九日外지依然 **綿絲의不安** 으로一圓臺에서頭重商狀을呈하얏고大新은株式界全般이東新高로投機化됨을따러十一日에八十六圓十二日에八十七圓으로昂騰되고十四日에八十八圓臺에上하는好況을呈하얏스나十七日外지八圓臺가因緣場이되어警戒人氣、濃厚케하고大新上値가疑問視되고買氣가委縮이엇섯스나十八日後場에至하야俄然沸騰되어大阪短期가大引에 **九十圓突破** 의大暴騰을演한後로當地도十九日外지에九十二圓二十錢新高價에猛進되어歲末高를確信케하얏스며京取는伸氣至鈍이나마廿二圓五十錢으로買上되엇섯고入超期에잇는貿易에中旬도繼續하야七百餘萬圓의出超로今年貿易이國際貸借上良好한結果、豫來한것이動機가되어株界는歲末掉尾의一大活躍을呈하얏스니即二十一日에爆騰된商狀이新高價의活況으로狂暴을演하야方總殺的活況으로總買人氣로天井不知의猛進을示하야大新이 **百圓臺突破** 로一圓十錢鍾新이百四十九圓三十錢으로百五十圓肉迫의熱狂的大商狀이엇고大阪은大新百一圓鍾新百四十九圓八十錢으로賣買兩方共이一躍을映케하얏스며地株도奔騰되어京取二十七圓仁取九十圓三十錢仁新三十三圓四十錢安取九圓朝紡十六圓五十錢金剛三十七圓殖新十三圓四十錢의各高價에躍進되다가二十六日에는鍾臨後의一押이잇서 **穩健大納會** 를告하고春高人氣旺盛이엇는바本月中各株의始終과高低를示하면如左하더라

株名	始價	高價	低價	終價
京取	二一六〇	二七〇〇	二〇〇〇	二六七〇
鍾新	一三三九〇	一四九三〇	一三三八〇	一四七三〇
大新	八三八〇	一〇一一〇	八二九〇	九九〇〇
仁取	八七〇〇	九〇三〇	八六五〇	九〇〇〇
仁新	二九三〇	三三四〇	二八五〇	三三四〇
安取	六九〇	九〇〇	六七〇	八四〇
朝紡	一五〇〇	一六五〇	一三五〇	一六五〇
金剛	一	一	一	三七〇〇
電新	一	一	一	一九五〇
殖新	一	一	一	一三四〇

◇寸鐵◇

【醴泉】上里面道村洞私設講習所에在學中인禹世鳳(三)君은晝間에는講習會에다니고夜間에는自己洞里龍頭洞에서約十名의勞働者를集合하야教授를한다眞實로熱心
◇【仁川】仁川青年聯盟懇親會席上에서一府二郡의郡單位로된青年聯盟代表가道聯盟發起準備會를組織하얏다懇親會의收穫이偉大
◇【井邑】梨坪面公普는新春에新築할希望이有하다고한다期成會에서努力한도感謝하다마는一般面民의熱誠도感謝하다



順天面楮田里 吳永植精米所
順天面東外里 李康昱精米所
順天面東外里 金成初精米所
市內榮町 雜貨商 吳貴用 韓泰善
市內榮町 二友商會 趙東軾 崔永基
曹溪山 仙岩寺
曹溪山 松廣寺
幸町 辯護士 盧載昇
黃田面 前議士 朴勝稷
東草面 有志 金炳都
別良面 青年會長 沈宜玹
西面 青年會長 許埈
筏橋南鮮貿易株式會社 專務取締役 李秉韶 取締役 村熏史郎
黃田面 有志 鄭浚鎔
住岩面 有志 裵炯周
順天面 有志 金性龍
順天郡守 吳錫裕
順天郡廳
順天面金谷 詩家 金潼
順天面大手町 麗水筏橋順天自働車部 朴浣來 電四七
市內 谷城行 三友商會 自動車部

順天面長貞里 樂善家 朴炳球
順天官民指定測量事務所 西門內 金道熙
榮州郡丹山面玉帶里 尹泰源
榮州郡丹山面丹谷里 李鍾爀
榮州郡丹山面丹谷里 權斗星
榮州郡丹山面丹谷里 崔秉寅
榮州郡順興面石橋里 安燾
榮州郡 順興青年會 會長 文聖易 副會長 金敬八 庶務 金東湜 總務部長 車丙爕 教育部長 朴炳弘 運動部長 申鉉周 實業部長 金昌鳳 書記 申泰龍
榮州郡順興面 面長 鄭鎬益
榮州郡順興邑內 雜貨商 金泰鎬
榮州郡安定面阿芝洞 金敬相
榮州郡順興面池洞里 白萬爽
榮州邑內 衡平社榮州分社
榮州郡豐基城內 嶺豐理髮館 魏相萬 權秀祚
榮州郡豐基面郁錦洞 靈田佛敎布敎堂
榮州郡豐基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榮州郡豐基面 面長 嚴柱浩
榮州郡豐基面 會計 金瓊斗
榮州郡豐基面 技手 李福根
榮州郡豐基面東部洞 張培楨
榮州郡豐基面金鷄洞 崔斗鉉
榮州郡豐基面城內洞 永惠堂藥房 秦泓
榮州郡豐基城內 崔駿
榮州郡鳳峴面 面長 李宅鍾
榮州郡鳳峴面梧峴里 朴勝萬
榮州郡鳳峴面梧峴里 申壽鉉
榮州郡豐基城內 金譯鍾
榮州郡豐基城內 李德敎
榮州郡豐基城內 榮豐旅舘 主 黃秉雲
榮州郡豐基城內 崔熙墉
榮州郡榮州面休川里 宋寅昌

榮州郡榮州面下望里 金允鎬
榮州邑內 鹽麴巾材商 榮興商店 主 宋星煥
榮州郵便所 所長 栗野俊雄
榮州邑內 權重洛
榮州邑內 榮信理髮舘 主 金春用
榮州邑內 行政司法代書人 李鍾大 全基卓
榮州邑內 シンガミシン會社榮州出張所 主務 雜貨商 金顯九
榮州邑內 穀物貿易 共榮商會
奉化郡乃城面赤德里 金相兆
榮州郡浮石面浮石寺 金竺典
奉化郡鳳城面中台寺 秦東爕
奉化郡乃城面海底里 金昌禧
榮州郡平恩面梧雲里 第一商店 金壽鐘
榮州郡平恩面芝谷里 永興堂藥房 姜而馨
榮州郡平恩面平恩里 農產組合
榮州公立平恩普通學校 職員一同
榮州郡平恩面 事務所職員一同
榮州郡長壽面葛山里 李宰虎
榮州郡長壽面盤邱里 米穀商 壽昌商店 李鉉奭 正奎
榮州邑內 私立東亞學院 院長 金基周 同講師 趙承哲 同講師 金舜遠
榮州郡伊山面新川里 金秉文
榮州郡榮州面下望里 朴炳國
榮州郡平恩面川本里 金斗鍾
榮州郡平恩面川本里 禹鳳龜
榮州郡平恩面梧雲里 金應鍾
榮州郡平恩面鵲穴里 粱米組合
榮州邑內 鹽麴肥料貿易都散賣 春一精米所
榮州郡浮石面甘谷里 朴耐斗
榮州郡浮石面龍岩里 金宗淵
榮州郡浮石面龍岩里 金華淵

榮州郡浮石面龍岩里 金思定
榮州郡浮石面龍岩里 金永秀
榮州郡浮石寺 住持 李石雲
榮州郡浮石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榮州郡浮石面 韶川郵便所長 丸田杉太郎
榮州郡浮石面韶川里 雜貨商 李化淑
榮州郡浮石面林谷里 張萬甫
榮州郡浮石面韶川里 面協議員 金健秀
榮州郡浮石面韶川里 金東奎
榮州郡浮石面韶川里 雜貨商 洪原玉
榮州郡浮石面韶川里 權長星
榮州郡浮石面韶川里 代書業 張師孝
榮州郡浮石面韶川里 金文守
榮州郡丹山面丹谷里 面協議員 李彰熙
榮州郡丹山面丹谷里 朴殷來
榮州郡廳職員一同
榮州郡浮石面甘谷里 禹漢永
榮州郡豐基面城內 金細工、印章彫刻、時計 萬年筆 各種機械修繕 權在七
榮州邑內 寫眞師 南龍顏
榮州郡豐基城內 光信自轉車舖 多寶主義 主 李重富
榮州郡豐基面山法洞 金復善
榮州郡鳳峴面梧峴里 永昌醫院長 李昌成
榮州面職員一同
榮州邑內 元錦仙女史
榮州朝鮮日報支局 申鉉佐 權奉然 金起孫 李漢昭 林相鍾 申泰植
榮州邑內 穀物貿易 正玉商店 主 孫復煥
榮州邑內 各種鐵工細工業 黃基成
榮州郡丹山面玉帶里 崔相龍
榮州邑內 耶蘇敎長老會牧師 姜錫晋
榮州邑內 雜貨商 權相用
榮州邑內 榮麵木材細叺商 申振均
榮州郡榮州面古峴里 朴勝瑚
榮州邑內 金貞嬉

榮州警察署長 前田藤次郎
榮州邑內 禹聖淑
榮州邑內 朝日理髮舘 崔海石 權永三
榮州邑內 金星自轉車舖 主 金榮奎
榮州邑內 榮州理髮館 主 安承泰
榮州郡平恩面水島里 金性奎
榮州邑內 榮州洋服店 金泰允 安正基 徐丙國
榮州郡榮州面昌津里 姜駿馨
榮州邑內 鹽販賣肥料商 昌信商會 主務 金洪奎 總務 金和鎭
榮州邑內 全龍達
榮州邑內 黃錦珠女史
榮州邑內 自轉車商店 姜方九
榮州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榮州金融組合理事 古谷堅城
榮州郡長壽面盤邱里 雜貨商 張師戰
榮州郡順興邑內 自轉車停留所 各種雜貨商 黃義鳳
本籍京城府仁寺洞一〇二 住所榮州郡順興面石橋里 金重培
榮州郡順興面石橋里 柳玹
奉化青年會
榮州郡文殊面月呼里 月面農產組合 會計 金汝昆
榮州郡豐基面東部洞 嚴柱善
榮州郡鳳峴面魯佐里 鳳林醫院長 蔡永達
榮州郡鳳峴面下村洞 劉大鍾
榮州郡鳳峴面魯佐洞 金潤七
榮州郡鳳峴面魯佐洞 金熙采

榮州郡丹山面東元里 孫亮國
榮州郡安定面東村洞 崔敬道
榮州郡順興面池洞 權仁昌
榮州郡順興面邑內里 黃洛龍
榮州郡順興面邑內里 金思益
榮州郡順興邑內 車丙爕
榮州郡順興郵便所長 幸宗次
榮州郡順興邑內 雜貨商 金埰炯
榮州郡順興邑內 衡平社評議員 尹順碩
榮州郡順興公立普通學校長 職員一同
榮州郡順興面邑內 金昌徽
榮州郡順興面事務所 申世均
榮州郡順興面內竹里 面農會特別評議員 安周淵
榮州郡順興面晋邱里 順興年會員 宋應鳳
榮州郡順興面晋邱里 順興青年會員 權龍鎬
榮州郡丹山面玉帶里 李鍾玉
榮州郡丹山面玉帶里 自働車停留所 池龍出
榮州郡丹山面玉帶里 區長 金仁培
榮州郡順興面池洞里 尹柱大
榮州郡丹山面 職員一同
奉化郡乃城面海底里 醫生 金容櫨
奉化郡乃城市場 乃昌理髮舘 張命祿
奉化郡乃城市場 理髮師 崔宗石
榮州郡浮石面北枝里 金瀚玉
榮州郡榮州面可興里 金浩昌
榮州邑內 金銀細工業兼印章彫刻 金兌植
榮州郡安定面東村洞 米穀商 徐庭玉
奉化郡乃城面赤德里 安相泰
奉化郡乃城面赤德里 金先用
榮州郡順興面內竹里 朴斗任

朝鮮日報

新年附錄

文藝는社會에뒤써러지려는가?

朴英熙

一

文藝와人生은 어느때든지서로떠날수업는關係에잇다 그것은 人生과情緖或은感情이서로떠날수업는關係나다름이업는것이다

即사람에게는藝術이라는것을갓지안코면아니될 엇더한本能的으로要求하는한機能을가지고잇섯다 그럼으로古代社會로부터 現今社會에이르기까지 늘藝術이라는것을가지고왓섯다

古代社會에서는 社會의制度가單純하고 人類의文化程度가떠러서 그만한藝術이잇섯다 即배가부르면노래하며 춤을추엇고 아름다움을볼때에 그것을讚美하며 즐거우면 한가지웃음을웃엇고 무엇이必要할때에는 器具를만들엇든것이다 即다시말하면 그時代의사람들의生活이 必然的으로要求되는것만을創造하엿든것이다 또한原始的이엿든그들의 藝術이라는것은 한가지로必要를써다를때또한한가지로事業을가리하며創造를가리하엿든것이다 가령한種族을가지고 말하게되면그種族이 큰侵害를當하야 恐怖期에잇섯슬때에 그들중에는 노래부르는사람이한아도업고한가지武器를들고 生死를가리하며敵을對抗하엿든것이다 또한그들의生活中에 器具가必然할때에는 한가지로 土器를만들어使用하엿든것이다

그럼으로그들의 藝術이라는것은 반드시 그들全體(民衆)가必須的으로잇서야할때 한가지로잇섯든것이며 決코部分的으로나 不具的으로發展하지아니하엿스니 그들의藝術은享樂보다도 生活의必須的條件中에한아이엿다

이케얼는말하면 그들의藝術은 그들의社會的要求에서나서지아니하엿스니 그들의藝術은그들의社會的文化發展에重要한役을맛헛든것이다

그럼으로그들의美術은 모든器具를쓰기에便利하도록만들기爲해서만 그美工이必要하엿스며 決코어떠한部分의享樂을爲해서 奉獻하려고製造하지는아니하엿다 이럼으로써 그들의藝術이라는것은 人類의文化를發展시키려고하는데에만必要하엿다 그外에는 그들이 다른藝術을創造하려고하지는아니하엿섯다 即石版을 가장美術的으로裝飾한다하면 그것은 가장實際에거울만들려함이엿고土器를 가장오래동안技工을다해서만든다하면 그것은 그들의生活에必要하도록 持久性을만히잇게하랴함으로하는것이엿다

即그들은 그들의集團의利益을爲해서 그들의藝術을創造하엿섯다 또한그들의集團을爲한生活과文化의啓發을爲하여서努力하엿다 그럼으로 그들의所謂藝術이라는것도 말하면 結局 그들의文化啓發上 한條件이엿다

二

古代人의藝術이 그들의集團을爲한文化的條件이엿든것이나마참가지로 現代의藝術도 現代의社會를爲한文化的條件이되지안코면아니된다

社會는人間이集合된한組織이니 社會가人間업시存在를갓지못할것이오 또한 人間이個人으로만살수업는外닭에社會를떠나서는 또한人間의生活이無意味한데그치고말外닭이다 人間의生活은社會的으로 團結되여서 相扶相助함으로서 文化의向上을圖謀하고 人生生活의幸福을차지하는데잇다

따러서 人生과藝術과의關係가密接한그만큼 藝術과社會와의關係도큰것이다 그것은人生과社會와의關係가密接한外닭이다 그럼으로 어느때든지 藝術ㅣ文學ㅣ은 그社會를떠나지못하며 그社會의積極的文化發展의一條件이되는것이다

그럼으로 近代의名作치고時代的意識의差異는잇슬지언정모도가 그社會를背景으로하여서 或은諷刺하며 或은非難하고 或은破壞하며 或은啓示하며 或은進展하는機能과 手段을暗示하엿다 그럼으로 社會進化의積極的效果를 藝術的힘으로써 表現하게보이여주엇다

우리는 먼저『유고』의『레미서래블』을생각하자 勿論現代社會에서보면 別로價値는업스나 그러나 그作品이그時代에잇섯든 그社會를爲한 即그社會의 沈滯된生活에 한 격지안흔刺戟과不平을던저서 새로운 理想을表現시힌것으로 即그社會의文化를 爲한作品으로서 優良할必要를갓게되엿다

三

그러나 人間社會가 上述한바와가치 그러케 集團或은社會의利益만을爲해서 滿足한發展을해서왓는냐? 하면事實上그러치는못하엿다

쉬웁게말하면 平和롭고自由롭든民衆의生活이 封建制度로부터資本主義制度에 이르기外지에는 人類의生活과社會가必然的으로二大區分을分裂하게되엿다 即封建制度의領主로부터資本主義社會의資本主에이르기外지 相對階級 即無產民衆의生活은領主와資本主에게生活의解放을엇지못하고 壓迫과 苦役으로써 現今에이르렷스니 그들의社會가微弱하엿스며 그들의生活이 悲慘하엿든것은 的確한事實이다

그러나 人類는眞理를探求한것이다 眞理가업는곳에理想이업고 眞理가업는곳에光明이업고 光明이업는곳에生活이업스니 따러서社會가업고藝術이업슬것이다

이럼으로우리는眞理잇는社會를發見하며 따러서 그社會生活의理想을呼喚하는藝術을차저야할것이다

이에우리의眞理라는것은資本主義社會에서苦役하며『에스푸로이테介』를當하는無產階級을解放하는것이며그民衆의生活을解放하는것이니 그들의文藝가또한解放文藝가될것은 우에말한 人生과社會와人生과藝術의關係로써보아서當然한事實이다

더욱이 지금外지의文藝는資本主義社會의娛樂品에지내지아니하야 解放階級과는干涉이업스니 반드시解放階級의文藝는새로히 일어날것이事實이다。 即말하면 末梢神經的事業만을부르짓고吾輩에醉해서스스로生을輕蔑히自滅하든그『섈르지와』文學에서 民衆의生活을爲하며解放될民衆의社會의文化를爲해서 健全한文學을세우는것은우리의眞理를爲함이다。

四

그럼으로 우리는人類의眞理를爲해서解放되여가는無產階級의새로운運動中에 特히그文化的條件의한아인藝術ㅣ文學運動을생각하지안흘수업다。

우리는 먼저 이文學運動의前期로서보아 露西亞의幻滅期의作家『췌호푸』나『虛無主義를말하든『투르게푸』 나그外에『떠스도에후스키』…等의作品을볼수잇다 또한後期로는『골키』나『싸두부스』나『세라비온』兄弟等의作家를볼수잇다 前者의屬한作品 即『췌호푸』의 『완야叔父』『三人姊妹』『櫻園』이라든지『투르게네푸』의 『處女地』나『아버지와아들』이라든지 『떠스도에후스키』의『罪와罰』이라든지가沈滯된社會 解放되려고苦悶하는無權無產階級의黎明運動에얼마나만흔暗示와啓示를주엇든가? 우리가 또다시社會的으로그作品의價値를 생각할것그作品은 藝術運動前期에잇서서 얼마나만흔效果를주엇든것이며 現今『싸ー두부스』의』光明크라두레』運動이 얼마나만히社會的으로 無產階級解放運動에 效果를보이엿든가? 그는『地獄』으로 現社會의『虛無』를보이여주엇스며 『砲火밋헤서』로 侵略主義 軍國主義의 非人道的 戰爭의惡戲를 우리에게 보이여주엇스며 『光明』으로 그는우리가할바를指示하지다 그럼으로 가장힘잇는作品은

五

이에 우리는 다시朝鮮의文藝를살펴보자! 아니다 그보다朝鮮의社會를더한번보자! 그러나 朝鮮의文藝만을보는사람이잇고 無產的朝鮮社會를못보앗다하면 그는一言으로서 말하기를『朝鮮人의生活은 어느佛蘭西의都市한모퉁이에서 浮浪靑年男女를相對도하는 한컷은카페의生活』이라고할것이다그러나 우리가 투르게네푸의『獵人日記』나『處女地』를볼때에우리는곳露西亞에잇는 그民衆의生活과 그들은期待를 露西亞에가지안이하고도 能히알수가잇는것이다

그러나 現今朝鮮人의作品만을보든사람이 實地로朝鮮人의生活과社會的環境을볼때에 그는말하기를『朝鮮의作家는모도가夢想的哲人이며超人』이라고할것이다 그外닭은 朝鮮의現今作家는當場에 밥을굶고안커서도못대만잡으면料理와술과妓生에 簇出하는外닭이며 그들의이活이 社會的으로 沒落을當하편서도 못대만들면『사랑사랑내사랑』이 거침업시 나오는外닭이라 그런故로 그들은꿈에날뛰는超人이란말이다勿論一部分으로는新興文藝가 創造되려하는바가아닌것은아니나아즉도 셰르즈와지의玩具가남어잇다 오히려創作이힘업시나오다 或은이러한말을듯는다『朝鮮은亡해간다 依賴할것이업다그러니外藝術이나享樂하자』해서 맛치無能한사람의苦悶의毒酒를마심으로瞬間을享樂하는것이나한가지로 그들은藝術을逃避城으로생각하는사람도잇다。 그리해서瞬間瞬間에서생기는奇怪한幻想의淵落된옷과 肉慾과肉慾새이에變態的作用을 큰發見이나가티 十폐지二十폐지우에羅列해놋는다。

그럼으로 그들의文藝는朝鮮社會를떠나고 無產化하는民衆의苦悶을떠나 消極的個人主義에머물으고만다。

만일그들의文藝가 이와가티個人享樂에머므르고 社會에는뒤떠러지고만다면 그들의文藝는文學的價値를喪失케되다 文藝의價値는社會的意義를含有한째에생기는것인外닭이다。

그럼으로 그文藝는結局 펜習字에不過한死文藝이다。

이에 우리의文藝는 우리의社會의뒤써러저서는 안이되다 그것은 우리의思想이 이時代에뒤써러지면 아모價値가업는것이나同一한것이다

압흐로 우리의文藝는 반다시沒落하여가는우리의社會와同一한步調로 或은理想的으로社會보다先進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落心하지안는다우리에게는 不完全하나마 無產階級文化를爲해서努力할만한同志가나오겟슴을깁버한다 오히려現今에도 외로히奮鬪하는몃몃同志가不絕이努力하면서잇다

따러서 그들이將次社會에또한큰供獻이잇슬줄로밋고이에그친다

ㅣ一九二五年十一月ㅣ

金剛山人 金振宇氏一試毫

歷史的使命

堺利彥

人은自己一身에 엇더한使命을感得할時 비로소能히自信을가지고 勇氣를내이며活動을繼續하야 安心滿足하야一生을終할수가잇다 特히그使命이社會國家의進步發達에貢獻하는 어느階級또는어느民族의歷史的使命인境遇에는 一個의凡人도實로崇高偉大한德性을發揮할수가잇다 이와가티생각할때에諸君은 果然如何한使命을가지고잇다생각하는가

現今世界에잇서서 一國의內部에는資本家와勞働者 地主와小作人 有產者와無產者 富者와貧者의對立이잇다 그리하야前數者(即富者、有產者、地主、資本家類)는現今이社會國家를支配하며繁榮하며잇다는自覺을가지고잇다 即彼等은 그屬에自己의歷史的使命을感得하고잇다 그러나 彼等의使命은거의이미다마치엇다 彼等의使命은 거의完全히過去에屬하엿다 따라서새로운使命이 後數者(即貧者 無產者 小作人 勞働者類)를부르는中이다 이數者는 現今飢餓와困憊中에在하야 悲慘의極에陷하엿스나 그러나彼等을부르는는使命이 彼等의눈에希望을주고 彼等의가슴에理想을주고 彼等의맘에勇氣의鼓動을與하기始作하엿다 今日그들가운데의先覺者는 이미充分한自信과抱負를가지고次時代의支配者가될것을自期하고잇다 이使命이即現時에在한無產階級의歷史的使命이다

그런데이兩階級關係와가른것이帝國主義的大國家와 그것에從屬한植民地間에도存立하엿다 植民地란것은 帝國主義的大國家에게 壓迫되고搾取되고蹂躙되야 참아보지못할悲慘한狀態에陷하엿다 帝國主義的大國家는 或은人道의美麗라하며 或은文化의扶植이라稱하며 或은平和의確保라稱하야여러가지美名의看板下에서自己民力으로써領土(又는勢力範圍)를擴大하야 그곳에다 自己民族의膨脹自己國家의發展을實現케할歷史的使命이 잇다고信한다

그러나彼等의使命도 벌서이미終焉에近하여가는中이다 그리하야新使命은後進民族或은所謂劣弱民族에게로 가는中이다 植民地의民族은 劣弱일것이오後進일것이다 그러나彼等은世界的大大變轉의新機運을開始케하고 促進케할任務를負하엿다

그것은 國家의內部에잇는無產階級의使命과類似한것이다 兩者가共히 支配者에對한被支配者의能動的任務이다 次代에잇는 我等의希望 我等의理想은實로 이被支配者의活動가운데에서 出現하는中이다 植民地民族의重大한歷史的使命은 即此에在한것이다

그러나 이것은世界全體에關한一般論이다 日本은特殊國이다 世界의一般論은 日本에適用될수업다 日本은帝國主義的侵略國家는決코아니엇슬것이다 朝鮮은勿論 壓迫되고 蹂躙되고搾取되는植民地는아니엇슬것이다 그러면諸君은 今日에果然如何한生命을가지고잇겟느냐나는그것을適切히말할수잇슬만한知識을 가지지못하엿다 나는 다만諸君의深思熟慮를求할뿐이다

謹賀新年

慶北金泉公立普通學校 學務委員 李漢騤

慶北金泉公立普通學校 學務委員 李相寅

今般營業을一層더擴張하야來賓에親切明瞭하오니江湖僉位는陸續來臨하시압 慶北金泉大和町 慶一旅館 丁秉燮

慶北金泉公立普通學校 學務委員 鄭完燮

金泉郡果谷面普通學校 學務委員 李相亮

慶北金泉郡金泉面南山町 金泉面協議會員 裵度潤

金泉郡金泉面南山町 金泉面協議會員 洪在淑 電話一九番

金泉郡金泉面本町 廣濟藥房 都正模

金泉郡金泉面黃金町 朴明石

金泉郡金泉面本町 綢緞布木商 韓國鉉 電話二一四番

金泉郡金泉面黃金町 鄭東善

金泉郡金泉面本町 綢緞布木商 曺允德

金泉郡開寧面東部洞 禹沂植

金泉郡石峴面下院里 李華永

金泉郡甑山面黃項里 金錫祺

金泉郡代項面德田洞 田鎭亨

金泉郡大德面中山里 文賓鉉

金泉郡大德面事務所 面職員一同

金泉郡位良面九野洞 鄭完鎭

金泉郡開寧面東部洞 裵永基

金泉郡甘川面福川洞 李漢龍

金泉郡南面月明洞 李漢永

金泉郡果谷面光明洞 呂煥道

金泉郡開寧面新龍洞 羅彩淵

金泉郡金泉面黃金町 穀物貿易商 張時雨 林京祚

金泉郡代項面香川洞 金寧基

金泉郡牙浦面國士洞 辛潤石

金泉郡金泉面城內町 穀物商店 陳成玉 電話一一七番

金泉郡金泉面城內町 司法代書人 權尙集 電話一四五番

金泉郡金泉面旭町 南鮮物產委託賣買業 黃致三 裵度鴻 電話一七五番 電略(コ)又ハ(ハイ)

京釜線大新驛前 今屋旅店 李炳洙

金泉郡牙浦面事務所 面長 成樂珪 書記 成基彥 同 尹道源 同 金文煥 同 金在永 同 申執 會計 崔鎔 技手 金擧泰

金泉郡金泉面旭町 海陸物產委托販賣 鐵道荷物取扱業 韓鳳瑞 羅德允

金泉郡金泉面本町 綢緞布木商 崔在榮

金泉郡金泉面錦町 우리洋服店 鄭奉鎭

金泉公立普通學校 學務委員 秋應天

慶北尙州郡功城面玉山驛前 玉山旅館 石聖淳

慶北金泉郡金泉面南山町 金炳義

慶北金泉郡金泉面大和町 永南旅館 南澤鉉

慶北金泉郡金泉面大和町 大邱旅館 鄭桂香

慶北尙州郡功城面玉山驛前 朴東俊

慶北金泉郡金泉面南山町 金泳熙

慶北金泉郡金泉面黃金町 金龍寺布教堂 李春潭

慶北金泉郡金泉面黃金町 不二布教所 金雪河

慶北金泉郡金泉面黃金町 金辰宮

慶北金泉郡大德面館基里 代書業 金日守

慶北金泉郡牙川面中旺洞 米穀商 徐仁植

慶北金泉郡牙川面南山洞 朴載夏

慶北金泉郡金泉面本町 雜貨商 成德根

慶北金泉郡金泉面本町 紳士靴製造 靴改良及修繕 金在潤

慶北金泉郡金泉面南山町 李商伯

慶北金泉郡金泉面南山町 司法代書人 蘆原藤一

慶北金泉郡農所面月谷洞 李道三

慶北金泉郡金泉面黃金町 綠工製造所 尹學晟

慶北金泉郡金泉面錦町 德和園 本店 孫境支 電話二四六番 本町支店 李文科 大和町支店 初兆金 大田春日町支店 孫璞支 電話二三八番 大田本町支店 孫璞三 電話二三二番

慶北金泉郡牙川面南山洞 全桓進

慶北金泉郡金泉面本町 入齒營業 金庚七

慶北金泉郡金泉面本町 綢緞布木商 李晃和

慶北金泉郡金泉面本町 金銀細工商 韓益洙

慶北線店村驛前 勞働親睦會長 李注祥

金泉郡金泉面城內町 高等理髮館 金成龍

慶北金泉郡甘川面事務所 面職員一同

慶北金泉郡金泉面城內町 朝鮮料理 長春館

慶北金泉郡金泉面城內町 朝鮮料理 明月館 電話二三九番

栗山通度寺馬山布教所 朴雲提

慶北金泉郡農所面月谷洞 李鍾憲

金泉郡金泉面錦町 回生醫院 金鍾鎬 電話三〇〇番

金泉郡金泉面旭町 海陸物產委託賣買業 主任 金炯一 專務 陳敬玉 電話二七二番

金泉郡金泉面城內町 朝鮮料理 太平館 金月香 金山紅 金蓮玉 鄭錦香 朴無窮花 趙鳳仙 李桂花 河錦仙 電話二一五番

慶北金泉郡金泉面南山町 洋服店 朴海龍

001557

慶北金泉郡金泉面大和町 大和旅館 韓在五

慶北金泉郡金泉面錦町 自轉車商店 各國自轉車 アリミヤ號 ダンロツプタイヤ 販賣 修繕 鄭基東 電話二五〇番

本機特長
一、米의等級在來土磨에比較하면檢查上優越한特權이有함
二、小米은絕代로無함
三、玄米一石調製에對하야從來土磨에比較하면殺十五斤은有益함
最新式輕轉고무製摺機械製造販賣所 金泉旭町 主任 閔溶植 技術並販賣者 梁致殷

馬山府元町 海陸產物委託賣買 金漢榮 振替京城一一三五番 長距電話七番 電略옹又ハ(エイ)

馬山府富町五五 陸軍御用達 精肉商 李淇浩商店 電話三〇七番

馬山府俵町 朝鮮料理 漢陽館 電話四二五番

原籍慶南固城邑內 現住京城府青葉町一丁目一〇五 固城電話二一番 京城本局電話三四三番 朴翊洙

馬山府郡外一丁目 貿易商 旅館業 鐵城旅館 主 朴連壽

馬山府萬町 三省醫院 金炯轍

追憶이새로운 女子共同宿舍

객디에서공부하는 젊은녀성을위하야 이런것을설비하라

梨花專門學校敎授 李恩羅

오래간만에 고국에도라와서 새해새날새아츰을 마지하게되니 과거사년동안 만리이역에 외로온객이되여듯고본 여러가지 일이눈압헤 환등가티 지나간다 그중에도 나에게가장 인연깁고늣김이만흔「보스톤」녀자공동긔숙사가 더욱나의머리에 떠오른다 그것은 넉넉「패킨」니 멀리 고향을떠나「보스톤」으로 배홈의 길을차저온 녀자들을위하야 지은집이니 류숙할만한곳이업서애쓰는 시골류학생들의 정형을크게

동정하고 사회사업의한아로 경영하는곳이다 현재십오세로 삼십오세까지의 팔백여명청년녀자들이 긔숙하야잇스며양(洋)의동서와색(色)의황백을가리지아니하고친형데와가티서로의조케 지내인다 팔층된훌륭한집에는 주위로 화초를심어고한업호모든 아름다운 화원이잇서멀리서보는자로하여금 옛인지 집인지를 거위 분간치못하게할 뿐아니라 한쌍나비가티 정다운친구의 손목을붓들고 사랑의속살거림을 그치지안는 젊은녀성들의 녀름한철 유일한피서디가 된다고도 할수잇다긔숙사안에는 큰々집실, 젹은응접실, 대강당, 딴스하는방, 식당, 차집, 목욕탕, 빨래방, 뎐화실이잇고

사설우편 소와과차로집부치는곳도 잇스며 넓은데니스코ー트도잇다 빨래는남에게 맛기지아니하고 자작하라면 몸갑십오전을 내이고 암만이던지빨수잇스며 싼후에는 뎐긔로말리나니 큰장속에잇는 설업를에 이고나무줄에 빨내를걸면 아모리축거운것 이라도 이십분동안에 다말르는 것이다 이긔숙사에는 네개 고학생들이 만히잇나니보통학생에게는 다른긔숙사와 똑가튼 긔숙비를밧고 고학생들에게는 식당일을식히되 하로두세만일하면두세를 누이고세씨일하면세씨를먹이고 한주일에 미국돈으로칠원식수가량을준다

보통학생 에게는일주일예방갑(두간독방에 사원오십전)과식비사원이십오전(두셋에)을 내이는데 방갑은방을따러 달으니 큰방에들어잇스면 한사람이 한주일에 삼원십오전식이요 데일조흔방에 혼자잇스면 일주일에십원(이부미국돈으로)식을 내인다 고학생들은 매일오전일곱시십오분전부터여덜시반까지 오후다섯시 십오분전부터 일곱시까지 식당에나가 상보기와상치는일을하며 보통 학생들의밥먹는 시간은 아츰 일곱시부터 여덜시반까지 점심은열두시반부터 한시반까지 저녁은다섯시부터 일곱시 까지자유로가서먹나니하번에

사백명식은능히드려안즐만큼식당이큰것이다 나도 고학생의 한사람으로날마다 흰행주치마를 둘르고 호사하는학생들의시중을 드럿다 토요일과일요일은 특별히밥시간이 느저서 하로세번씩상을하고나면꼿처럼기다리든「쎈데이」의긔분이미업시 슬어진다 나는아츰여덜시에그긔숙사를 떠나학교에 갓다가저녁다섯시면 도라와서 일을하엿다학비는일년一주두학긔에 미국돈으로一백오십불가량이나 됨으로 그긔숙사에서버는 돈으로는 어림도업섯다 그럼으로녀름방학한철은 그긔숙사에서 상일하는이외에다른곳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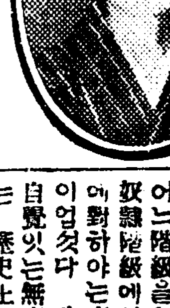
돈을버러 저축하엿다가 쓰는이가 만흐며 보통미국녀자 고학생들의 하는일은 남의집아이보기, 상보기, 접시씻기, 류리창닥기와 타입우라이팅하기나 버고격 미국녀자보다 외국녀자가 만타하겟다 미국녀자들은 생활이풍부한 그만큼사치하게 몸을꿈이고 철은낡녀쎠리 억개를것고산보하는것으로 만흔 세월을 보내는이가 적지아니하며 그반면에 잠시도쉬지안코 공부에전력을 다하는녀자도 진실로만타、하여간그들은분주한빗이얼골에 나타나며 천천히 거름을것는사람은 백에한아도 찻기어렵다 나는지나간나의생활을

회억하는 동시에그공동녀자긔숙사가얼마나나에게필요하엿든것을다시한번생각하엿다 오잠ㅅ못되는 젊은몸、현수공권으로 산설고 물설은타국을차저가서무사히 업을 마치고 도라온것도 그집의 은공이아니라고말치 못하겟다우리 조선에도 나날이 향학열이심하야 행장을싈머지고 한양을 차저오는녀자를 그수를헤일수업스나 학교의긔숙사가 협착하야 맘대로드러갈수 업슬뿐아니라 더욱이 고학을뜻하고올라온 학생들에는참으로 인도하여줄 바책이묘연하다 나는무엇보다도병인(丙寅) 새해에는 보스톤녀자공동긔숙사 가튼사회사업을 하실분이 생기기를 그윽히바란다

◇…뽀스톤의녀자공동숙사…◇

乙丑의回想記

K S



사람은누구나다 생(生)의 애착(愛着)과 미래의 동경(憧憬)을 가지는것이 안타가운 인생이다 하로를 속아살고 한해를속아살고 일생을속아사는것이 어리석은인생이다 이러하야 래일을바라고 새해를바라고 기다리는것이다 새해에는나을가 엇더한깃붐이올가하는 동경과희망을 가지게된다 오날되지안은일은 래일도 금년에되지안은일은

래년으로 혹은일생을두고도 바라는것이다 누구나상상의세계에는 비록실망과 환멸(幻滅)과패북(敗北)을가지고오는해일지언정 결코그러케는 생각하랴고도 아니하고 다만새해를기다리고 깃버한다 그러고행복의승리를 엇기위하야 서로차화피를흘리고 또한 피속에서싸호는것이 오날의중국동란(中國動亂)、인도의배영운동(排英運動)、혹은극동문뎨(極東問題)혹은빨칸반도의어수선한문뎨이다 이와가티 모든사람은 자긔의압길의행복을엇기위하야안타가운 고민중에서 동경에 꿈꾸는새해를맛는다 이리하야 을축년도한해에는새상사람에게기다리고희망이 가득하게마지한든 새해의 한아이아니엿던 가？그러나아！오날은 무심히도 가고말엇다 그러고 추억의눈물에 젓게한다 아！나는 지나간 을축년을엇더케마처듯든가생각하면너머도철업섯고넘어도깃거운희망에뛰기를 마지아니하엿다 청춘을 반넘어보내인나로써 아즉까지 지나간을축년을 마지하든때처럼 즐거워한일이 업다하여도 과언이아니다그러나

그을축년은쏫업시도가고말엇다 강호(江戶)의 외로운 재이되엿슬때 나는얼마나 을축년을 기다렷스며 얼마나깃붐의꿈을 꾸엇섯는지？을축년은나에게깃붐을권해주는사자(使者)와가티 기다리고 반갑게마즌해이엿다 ──오개성상의 객창한등을 면케할도 을축년이고 그립든 한양성을 초人롬발켜 마저주든것도 을축년이엿다 마는이케생각하니 나에게깃붐과희망을 가득히 실어다준것도 을축년이어니와

그반면에는교활한위선(僞善)과야릇한처세술(處世術)을맛보게된것도을축년이엿다하여간 을축년은나에게 원만코한만코정깁흔해이엿다고할수잇다 병인(丙寅)이란새해를맛고보니 우연히 네가그리워지는구나 둥근디구우에서나는너를다시금맛날길이바이업다너는무궁한생명을가젓스니륙십년이지나가면또다시오련마는한이잇는사람의생명을가진내야 아마도 너를기다리지못하리라 너를 보내는모든사람은 깃븜의 새해를맛는다고 깃버하며 춤을춘다 그러나그들이스사로 또속는줄은 아마왜닷지못하는듯하다 지나간 을축년아새해를마지한지이틀채되는오날나는 이것을너의회상긔로써적어둔다

新年을際하야 特히無產婦人에게

在東京朝鮮女性思想團體三月會員 李春壽

希望에싸인 祥瑞로운新年을 맛고보니 世上에나온지얼마못된 우리女性運動도 貴한나히를 한살더먹게되엿다 一九二六年의險阻한압길을豫想함에臨하야 우리女性의눈물석인過去를回憶해보고 辛酸한現在를 헤쳐보아서 우리의慘憺한地位에 對하야 새로운意識을喚起식힘도무엇보다 뜻이잇슬가한다

何必女性에만限함뿐아니라 全人類의歷史를 들추어본다면 支配와被支配란單純한關係가 歷史의構成要素가되엿슬것이다 神은選民(王侯와此에准한貴族太民)을支配하엿고 選民은權力階級外지支配하엿고 그아래로 騎士 平民 奴隸에이러기까지 마찬가지關係로 支配와服伏으로서一貫하엿다 그러나以上의 어느階級을勿論하고 最下層의 奴隸階級에이르기外지도 女性에對하야는支配服伏치안는階級이업섯다 다시말하면 現代의 自覺잇는無產階級을 除外하고는 歷史上 어느階級을不問하고 우리의敵되지아니한階級이 업슬것이다 그들은 女性을壓伏하는行動에이르러는 支配被支配란墻壁을헐치고 共同聯絡을布告하야無辜한女性大衆에게 肉迫하기를 躊躇치안엇다 우리는저들의손으로꾸민記錄을보고라도 이것을 昭詳하게알수잇다

어느時代나 엇던社會를勿論하고 政治 宗敎 道德 法律 敎育은 그全部가 우리의壓伏을 標準삼아 만들지안은것이 업섯다 政治는여러말할것도업시 女性으로써 政治問題의對象을삼아본적도업섯다 宗敎는 天地開闢初인 아담 이부쎄부터 女性은犯罪의元祖를만들어 人類의墮落된責任을女子에게轉嫁하엿고 男性의肋骨一片이女性의造成資料라는 僭濫한虛構로 女性은男性의寄生物되는神秘化식히고커 努力하엿다이밧게도女性을 盲從 蔑視한 所謂聖典中에서 헤아릴수업시發見될것이다 倫理는乃是宗敎의 感化로부터나온 日常行動이고 보니 더말할것도업거니와 『女必從夫』란 한마듸말은 前代倫理의全意義를 넉넉히代辯할것이다 法律도 現代法律이昭詳하게보임과가티 모든特權은 男性에게만許與하엿나니 要컨대 權利는男性의獨占物이요義務는 女性의擔當할것뿐이다 敎育에이르러도 그들의所用은 意識업는個人이고보니 敎育의機會外지剝奪하야 말청업는機械그대로 自家의放棄한食慾을滿足식혓다

이와가튼不合理한 環境에幽閉된지 壓千年長久한歲月에그 社會的 地位는다든지 家庭的地位의 보잘것업시退嬰된것이야 勿論이겟거니와 그個性에이르러도 氣力은洗衰하고 意志는怯懦하게되고 體質은纖弱하야 精神과肉體間 男性에比하면어림업시 能率의差가생겻다 이와가티생긴能率의差는 時間의지남을따러 그隔隔은날로甚하게되고보니 結局은그들의預定計劃대로 個性이희미하고意識이判然치못한機械로化하고말엇다 이와反對로 男性의專橫은去益甚하고 暴壓은날로더하야 女性으로써는 더욱반갑지못한 現代資本主義社會外지臨하얏다 實로這間에 女性에對한正確한 記錄이잇다고하면 피와눈물로 配合된一篇哀史일것뿐이다

그러나前代에잇서서는 女性의待遇가 그다지慘虐하든社會이라도 그들의虐使에屈從만한다면 衣食의保障은 해주엇다 이와反對로모든無理한要求에應從하고 가진侮辱을바드면서도 三旬九食의保障이업는社會가잇나니 이것이우리가現在起動하고잇는 資本主義社會이다

資本主義社會에서 女性을壓伏하는手段의特色은 그狡猾한虛飾이잇슬것이니 女子參政이니 女子敎育이니하는問題가여긔謗當할것이다우리는이와가티 빗조흔看板에眩惑되기쉬울러임으로그正體를미리探探해보자女子參政가든問題야朝鮮女性으로서는 夢昧間이라도생각해볼機會조차업섯거니와 先進外國에서 그것이잇다드라도一部世況모르는 부르조아女性들의잡고더일것뿐이엿다 다음으로女子敎育이란 고마운看板도그眞意가上下壓千年間에 無知가운데살다가 無知가운데살아진數億萬女性大衆으로하여금일로부터는 그無知를啓蒙하야男性과對等된班列로 向上식히고커하는 誠意에서出發되엿슬가？아니다 그러타드래도 現經濟制度알에 呻吟하는 無產女性이야주린배를채우고 헐버슨몸을가리우기에汲汲하고보니 이런恩惠를입을機會도가지지못할것이다 못처럼그機會를엇드라도 그本意가無知한機械를 怜悧한機械로 發達식혀 利用에便利를圖謀한것이니 이것은 先進諸國에잇서서 銀行 會社 官廳가튼곳에 尾末下席에안저 機械처럼 울々이고잇는 可憐한同性들이 부르조아女性敎育의眞意를歷歷히說明하고잇슬것이다

우리는여긔서 永遠히意識업는機械로써 生活하기를願치안는다 隷屬과屈從의報酬로써飢寒과窮乏을聽賜하는이社會를滿足히알고살수업다女性의叛逆性업고孤瞬한氣質을利用하야 맘청업는賃金奴隸를만드는 資本家의便宜를 이케는더보아줄수업다 이侮辱을씻다름 廉恥가진女性은 한族발아래로모히자 이不合理한報酬에 滿足할수업는 强한意識을가진女性은 서로뭉치자 賃金奴隸로써 境遇가갓고 處地가가튼不幸한女性은 굿게團結하자 따라서 우리의압헤가리운二重의 鐵壁은 우리無產婦人의團結한힘이아니고는 쌔트릴수업슴을 新年關頭에 다시웨친다

新女性이란무엇

價値大暴落의허물은누구에게

在東京朝鮮女性思想團體三月會幹部 丁七星

지난一年의 搾取를總動定할쌔에 기름진배가죽이 몃치더두러워칫승을 微笑하면서歡樂의元旦를 마지하는可憎한무리가한편에잇고 一年동안의辛苦를勘定할쌔에 여윈얼골에보기실은주름살이 몃개더느럿슴을 한숨쉬면서 苦痛의元旦를咀呪하는 可憐한무리가한편에잇다 復雜한世間事는내몰라라 나의使命은가는것뿐이란듯이 시침이뚝쩨는時間은 一九二六年軌道우로로事情업시성큼넘어섯다

新年은 새로운것의象徵이고보니 새소리를웨치고커할쌔는 新女性으로題目을잡는것도 無意味치안을가한다

現今의우리社會에는 二十年前에죽엇든사람이 다시쌔여나서 우리의通用하는말을듯는다고하면 意思가잘通하지못할만큼 新熟語가激增되엿다 이만흔새로생긴말가운데도 가장잘解釋치못할謎語가 잇다고하면 『新女性』그것이라생각한다

新女性이란字義上 舊女性을相對로하고생긴말이다 그러나나는이러한疑惑을버릴수업다 新女性과舊女性을境界한 標識은무엇인고？ 얼핏생각에 新知識의所有與否를말함인가？ 이것도一律이되지못하드라 中等敎育外지바든女子이라도 똑々쇠르고 아이낫코 살림살고보니 그만新女性이란班列에서落伍되더라 그러면이와反對로女性으로써 職業가진者를가르침인가？ 이것도모르겟다 男女七歲에不同席이란 썩은倫理를 父母親戚에게外지適用하야 信書檢閱 立會面會等節次가 苛酷한監獄面會手續을無顔케할만큼 至毒하게도 女學生의男子對面을戒嚴식히고잇는 百年前社會에서도 차저볼수업는 女先生님들에게 新女性이란僭越한職卿을줄는지？ 그러면舊女性으로서는보지못할衣冠신발도서 標準하는가？ 이것은더안될말이다 이러고보면 料理집遊廓이 新女性會館이 될러이니新女性이라고 점잔케 自任하는一部女性들에게 觸怒될말이다

그러고보니 이新女性이란語義가不正確하고 曖昧하단말이다 그러나우리社會에서는 標準업고 갈피잡을수업는이말을 使用하야 新舊女性을이마에삭인것처럼指摘해낸다 이外닭으로말미암아 悶巷에서淡蕩하게 노는醜婦들의行動도 쌔를따라서는 新女性으로指目되기도하고 音樂外나音쪼라고 戀文쥴이나씀줄알어서 富者집第三四婦人으로 入嫁할라다가 現代부르조아들의 唯一한綱領인 殘酷한女性蹂躪에犧牲된것도 新女性의變末路라는 冷笑와熱罵가 一般新女性이란 曖昧한등어리를向하고몰려온다 뿐만아니라方在 부르조아의人形이되여사람얼골가진즘생의脾胃를마추라고 油頭粉面에綾羅를감고다니다가는 不幸이險口의입설에오를쌔는 마찬가지로正體가曖昧한新女性이란일홈우에 露麗이써러진다 漢江에 靑年男女의情死란말받드러도新女性을聯想하기쉽고『近者男女의風紀紊亂』이란 新聞題目만눈에띄워도新女性을臆測하기쉽게되엿다

이와가티 新女性의갑이 어림업시暴落되엿다 責任을 누가 가지겟느냐？ 나는이와가튼허물을 有產有識階級인新女性 또는이와同情神의所有者인新女性에게돌리기를 躊躇치안켓다

그들은일즉이 父母의財產德澤에 新智識을어들機會를가졋섯다 한쌔는 冊子에서본文字그대로 男女平等이란소리도웨처보앗고 大膽스럽게 自由解放이란말도입설에올려보앗다 일이如意히되드라도自性의地位야 如前하겟것만은 民族運動에도 參加해보앗다 그러나애닯게도 그들은男性의女性에對한搾取는 否認하면서(嚴正한意味에잇서서 이精神으로叛逆해본적도업겟지마는) 有產者로써無產者를 搾取하는것은 肯定해버렷다

理論上 強者가弱者를搾取함을 肯定할때에는 男子와女子의境遇에잇서도 享樂的搾取이거나 奴隸的搾取됨을不拘하고 이것도肯定하야만될것이다 따라서 現社會의搾取制度를否認하는 强烈한意識이업시 男性으로부터女性을解放코커함은나무에올라고기를求하는것과다름이업슬것이다이와가튼矛盾으로 말미암아 그들의입설만으로부르짓든自由는 부르조아의人形이되고커하는自由요 虛榮의나래를펴고 戀愛의쑴나라로 飛翔코커하는自由이엇다

그들의찻든平等은 愛人의人氣를엇다고 演壇우에서 눈치주든暗語요 집에만도라가면寶石반지한개에 『男女平等』가튼酬酌이야 『奴隸』『盲從』等의웃장까지 더하야팔아먹엇다그듯中에는 外國新聞紙쪽에서본 그대로『公娼廢止』云云도해보앗지만은 이것도蓄音機喇叭구멍으로나오는 意識업는 흉내요(意識이 잇섯다하면 公娼된社會的原因이라도 캐여보앗슬것) 態는 巧妙하게감추어가면서썬썬스런운얼골로 可憐한同性들을冷罵 侮蔑함뿐이엿다 그들의功績이 무엇인가？ 한일이잇다고하면 無產女性中에 輕佻한少女들로하야금 虛榮의講壇으로誘惑하엿고 基督敎的精神으로써 無產婦人들의 懦弱한心機를엿보앗다 階級意識을 鎔折식혓슬뿐이다。

이럼으로나는여긔서 이爲合雜湯으로모인『新女性』이란 熏徵한궁치의大分散式을行하고십다。부르조아의玩具되기를切望하는 意識업는不具者가잇거든 人形圈이라도組織하야 新女性이란貴한일홈으로부터떠나가야만될것이다 그밧게부르조아道德을擁護하고 女性解放運動에沮戲하는新女性이잇거든 그는舊道德에拘束되고 舊制度에幽閉된舊女性과 다른點이라고는 形兒裝飾만이다를것이니 新女性이란圈內로부터 脫出해야만할것이다

그밧게 自家의心理를미두어서 無垢한少女들의가슴을億測코커하야 男子얼골만보여도무슨큰일이날것가티 父兄에게外지 監獄式面會를適用코커하는 頑固한 紀元前女性이잇다고하면 이는 女性解放運動에이에더한反動이업슬것이니 한時밥비 伊太利黑쏫쓰黨가튼것이라도組織하야新女性이란僭越한名分으로부터 떠나갈것이다

여긔서 참으로嚴正한意味에잇서서 新女性이 잇다고하면 知識의標準도아니요 門閥의標準도아니요 形兒의標準도아니라 그는舊制度에執着되야 男性對女性 有產對無產의搾取에屈從하는舊女性과는正反對로이 모든不合理한環境을否認하는强烈한階級意識을가진無產女性으로서 새로운環境을創造코커하는 熱情잇는새女性일것이니이야말로名實이相符한新女性으로서 이新大衆의莊嚴한陣列압헤는 前에列擧한 白晝의魍魎가튼 似而非新女性들은 그妖妄한뒤쇠리를 싹이업시감출것이다

平壤新倉里 果實 生菓 平壤 合資會社 東洋商會 電話九二〇番

平壤府竹典里一九五 北斗洋襪所 主 金建亨 電話一〇〇五番

平壤府衛[illegible]里二〇 穀物貿易 平壤精酒 江山商會 電話七八九 振替京城一四五五七番

平壤 泰安洋行

平壤府新倉里 普盛商會

平壤鍾路 綢緞布木商 朴承赫 同地方販賣部

平壤府鈒貫里 白山物產商會 附繰綿工場

平壤府鈒貫里五〇 箕城券番 電話六五九番

平壤府鍾路 新舊書籍 文房具 各種雜貨 金星館 振替京城一四五七六番

平壤鷄里一〇六 實用洋襪 各種專門 織組販賣 三共洋襪工場 主 朴孫泰昌 長 電話四 三〇三七 振替京城三〇三四 電略(三)又ヘ(ソン)

五福商店 主 全興瑞 長 電話一〇七四番 振替京城一四六六五番 同地方通信販賣部 專務 全泳德

平壤府蔚岩里 陶磁器 金物 洋燈 都散賣 文泰柱商店

平壤府蔚岩里 普和醫院 醫師 康德熙 電話一二六九番

平壤府竹典里一九六 蕎麥精米所 朱泰赫

平壤府新倉里 西鮮特產紙物 製紙原料直輸入 成惠商會 主 韓鳴厚永

平壤鈒貫里七三 平壤麵屋勞働組合

平壤府蔚岩里 金玉典當局 玉有彬

平壤府鈒貫里 景明商會 主任 李泰均 電話八二二番

平壤北金融組合

平壤府府洞里 世昌織造商會 主任 朴台泓

平壤府新倉里二十三番地 朝鮮料理 長春館 電話三三三番

平壤府新倉里一九三 紙物商 高[illegible]

平壤府外箕林里 箕林學院

大同警察署長 古市金彌

平壤府外箕林里 泰成醫院 院長 金泰[illegible]

平壤府鈒貫里二十九番地 商業會議所議員 李春燮

平壤府鍾路 綢緞布木商 全佐庸商店 附屬大同染織所 電話八〇六番

平壤府鍾路 內外諸革 靴原料 附屬品 直輸入 都賣商 大昌皮革店 電話一二五九番

平壤南山町 私立光成學校

平壤府大察里 第二東洋精米所 李[illegible]

平壤府慶上里 私立崇仁學校

京城公平洞五十番地 壽東醫院 院長 李完珪

平壤府竹典里一七 貿易商 大有商會 金能秀 電話一三三三番

平壤府外西城里 平安고무工業社 電話 一一〇四 一〇七二番

平壤府館後里 私立箕明學校 私立聖母女學校 校長 金聖鶴

平壤 光成高等普通學校

大同郡林原面事務所 面長 朴善瀅

平壤府南門通四丁目 平壤水木 織造 各種帽子 雜貨販賣 興闔商店 主任 [illegible]

平壤府新倉里 商業會議所評議員 朴文燮 電話四四六番

平壤府蔚岩里 法橋俱樂部 代表 金[illegible]

平壤府里門里 大同門勞働組合

平壤陸路里六九 平壤勞働大會

平壤府南門通二丁目 靴原料商 陸商會 電話一三二七番

平壤府水玉里一〇七 在日旅館 主 朴在日 電話一三二〇番

平壤府上需里 大同染織所

平壤府鹽店里二二 穀物斗量組合 電話九五四番

平壤大同門通 東亞藥業製造 寶藥販賣 獨一藥品公司 電話一二四四番 振替京城一三九一番

平壤南門通二丁目 共信皮革商會

平壤綢緞布木商組合

平壤西門通 普成社印刷所 電話九九三番

平壤蔚岩里一六三 大同東子(舍)製造所

平壤府館後里 私立崇德學校

平壤府鍾路 濟衆醫院 愛知醫學士 金秉瑞 電話九二一番

平壤府陸路里 商業會議所評議員 鄭奎鉉

平壤府壽九里 大同醫院 院長 孫[illegible]

平壤府里門里 金晃周

平壤府鹽店里八五 中央齒科醫院 院長 韓東[illegible]

平壤府南門通二丁目 綿物及雜貨商 尹世植商店 電話一一五三番

平壤府慶鄕里七七 西京醫院 院長 金[illegible]

平壤府外 箕林郵便所長 吳世昌

호랑이무덤 (懸賞虎談)

三等 全北泰仁邑內 宋周燮

옛날에 진안장수동리에서 잇슨이약이올합니다

엇던산골에 총각한아가잇는데 어려슬때에는 가세도넉넉하고 부모슬하에잇서 형도아우도업는귀동자로 잘아낫스나 불행히 자긔부친이 세상을밧인뒤 부지중에 형세까지 치패되야나이삼십이되도록 배필도 령하지못하고 늙은어머니와가티 구차한살림을하엿슴니다 가세가 빈한하나 효성이극진하야 낫난이업시 몸을잇기지안코 품을팔어서라도 그모친하분는 극진이봉양하는고로 근처에서는 그효성을 칭찬치아니할이가 업게되엿슴니다

하로는 벋이를갓다 들어오닛가 그모친이 별안간중병을못늘리여위석하여얻는지리원래효청이지극한 총각은 백사를전폐하고 어머님겻헤모시고안저 정성으로 구호하엿스나 백약이무효하고 하느님의 축원을하엿스나 엇지한까닭인지 모친의 병세는 점점위중하여갈뿐이며 보래 품을팔어 살어가는형편에 일을못하고 들어안첫스니 조석거리부터 걱정이되는지라 까닭업시람만조타고잇섯더랍니다

그런데하로는엇던사람에게운봉(雲峰)영에 편작이가튼 명의가잇단말을듯고 그의원에게나가볼수밧게업다고생각을하엿슴니다 그러나 사고무친한처디에 대신보냅사람도업고 자긔가 가자하니 위중한자긔모친을 혼자게시게할수도업스며 더구나 의원을보러간다할지라도 수중에 푼전이업스니 그역난처하여서 유의막수로 하염업는눈물만 흘리고잇더니 하로는 자긔모친역시 죽기전에 운봉잇는의원에게나한번불어보앗스면한이업겟다고말하더랍니다

이말을듯고는 더욱 속이줄이고 그대로잇슬길이업서 이웃집에가서사정이약이를하고품삭으로권당을선대하여가지고자긔가 갓다올동안 자긔모친을좀 살혀보아달라고 부탁한후 이튼날첫새벽에 집을떠나 운봉영을가게되엿드랍니다 조급한맘에 길을 밧비걸어 짓재(智峙)라는 험준한고개를넘어가지고 운봉을당도한후 의원에게 모친의병세를 자세히말하고 약을짓고나니 발서해는 황혼이되엿더랍니다

그러나 잠시가만히안즌는밤을잘수가 업는고로 그길로길을떠나 다시짓재(智峙)고개를 넘게되엿슴니다 그래서 얼마쯤가다가 그개마루터기를 당도하여보니 웬행인한아이 황소가튼 대호를 부등켜안고 올진갈진하면서 사람을살리라고 소리를질으더랍니다 그러나 날은저물고 집흔산중에 무슨행인이 잇슬리가잇슴닛가이모양을본그총각은 위급한친한에 약을지여 가지고 밤을도와 가는길이라 한만히굴수는업스나 목전에 사람의목숨이 위태한것을보고 그대로갈수는업섯슴니다 그래서 약보첩을 급히나려노코 바로달려들어 호랑이허리를 가러쥐 안엇더랍니다 사람을살리라고 애걸하던상인은 자긔가호랑이눈을 쎄것스니 허리를단단히쥐고 잇스라부탁하고 슬그머니 싸커나가더니 호랑이눈은 쎌생각도 아니하고 안데로가서 그총각의 약보첩을 걸머지고 도망을하더랍니다

총각은 갓득이나 맘이조급한중에 이런기막히는일을 당하고 가만이생각 하여보니 시각이위험한병모를 외로히두고 약을지으라나온 사람이 약도일어바리고 빈몸조차못가게되니 련디가아득하고 눈압히 캄캄하여지나 만일호랑이를 노아주면 호랑이밥이될것이요 아니노토 수강을 하여보자니 몃날몃칠이될는지 알수업는 형편이라 애가타서 초조히지내다가원경 원긔가쇠진하고 정신이혼미하게되야 부지중에 쥐고잇던범도노치고 자긔역시 그자리에넘어저잇게되엿더랍니다 얼마후에 정신을차리고보니 밤은더욱느젓는데 범은간곳이 업는지라 험한길을 가리지안코 련방디축으로 고개미를나려오니 외편주막에등불이 반작반작 하는지라 그집에가서 사정을말하고 등불한아를빌어가지고 엇더케든지 그날밤으로 자긔집을 며여들어갈작정을하엿드랍니다

그래서 허위단심하고 얼마즘을갓던지 자긔집에서 십리허즘되는곳을간즉 칭칭칭야에 무슨허연물건이길바닥에노혀잇드람니다 갓기히가서 집어들고보즉 이것이 련우신조런지 그는 자긔가 걸머지고오던 약보시접이드람니다 일헛던약보를 다시찻고보니 반갑기도하고 이상스럽기도하야 약보를집어들고 근처를살펴보니난데업는비린내가 코를찌르며 엽헤는 사람의해골이 노혀잇고 길바닥에는 류혈이 낭자하드람니다

의외에일을 당한총각은 부지중에 소리를련지허 몃마며질으고 그영에가 주커아커정신을 일엇더니총각의 호통소리에 동리사람들이 달려나와구호를하야 준고로 여러사람의 힘을입어 그날밝기전에 자긔집에 득달하엿드람니다.

집에와보니 그모친도 인사불성이 되엇스며 명재경각의 위험한형편이라 곳약을다려 흘려느코 사지를주물러가며 정성으로간호하니 다행히 로모의병세는 차차동정이잇기시작하야 그날낫에는완연히차도가잇는지라 그제야생각하여보니간밤의호랑이가달어나던상인을쏘차와행실을내고자긔약을일치안케한줄을 알게되엿다합니다

이러한이야기가차차전파되야 이지극하야 하늘이 돌봄이라하며한아릿다운 이야기거리가되엿더니 그후얼마만에 그총각이 산에들어가나무를하노라녹건던니 거미구에큰호랑이 한머리가 이총각을보고 무슨 의사가잇는것가티 처다보고잇더랍니다. 총각은 엄청놀라서 소리를치라다가 자세본즉 이왕짓재우에서맛낫던호랑이갓기도한지라총각은 무서운중에도 반가운 생각이나서물으되 그호랑이는 황겁한 모양으로엇지할지를 아지못하며 자긔가모아노흔 나무뒤속으로 기여들고자하더랍니다 총각은 그제야그호랑이가 포수에게쫏기여 은신할곳을찻는줄알고 얼른나무로 덥허서 숨겨주엇슴니다

과연거미구에 포수들이몃사람이 몰려오더니 호랑이를못보앗느냐고 뭇드람니다 그래서 못보앗다말하고 그사람들이지나간후에 여젼히나무를하고 잇노란즉 얼마후에숨엇던 호랑이는 나무밧을헤치고나와서 총각을유심히 바라보며 가다가돌어서감쳐에도 몃번을돌려다보는데 그모양이 련련을망하는듯 하며 그눈에는 고마워하는 빗이력력히 보이더람니다 총각은무섭덧중에도 상쾌한 생각으로 집에돌어와 모친과도그런이약이를하고이상히 여엇더니하로는어스름달밤에총각의모자가무슨이야기를하고잇더니 큰호랑이한머리가 엇던녀자를 들러메고 압들로뛰여들어와한가운데에 나려노코 달어나더랍니다 모자두사람은 일시엽짝놀나서방안에숨엇다가 호랑이가흔처녀이며 진신에조곰도상한곳은업고 다만정신만 노앗는지라 급히방안으로 들여다노코를을먹여먹인다 사지를 주무른다 백방으로간호한결과 미구에정신을차리게되엿더랍니다

처녀에게 주소성명과 엇지된까닭을물어본즉그처녀는 커녀다도곰산 어느동리에사는 사람으로서그날 밤이안커혼자며 리를빗다가 범에게몰린 줄만알고그 담엇지된 것은아지못한 다고을면서말을하더람니다

주인은잘위로하여 하로밤을재우고 이튼날새벽가티길을떠나처녀의집을차저가지고전후사연을이약이한후와서차커가리등지하여더니 커녀의부형친척이가려와서맛나보고커녀의다시살어남을깃버하며또주인의은공을생각하고그인후에범절에탄복하야피차의론한결과당장에작수청례로초례를지내고배필을삼엇드랍니다그래서 삼십여세로총각은아릿다운배필을엇고가세도점점늘어가서아조자미잇는가뎡을이루엇더랍니다

그후얼마만에권일왓던범은또그집을차커왓는지라집안식구가깜작놀다서 나가본즉 그범은주인을후원으로물고가서두발로엉파는형용을하며무슨간청을하는듯한지라주인은그뜻을아지못하야매우갑갑히녀이더니그날석양에에호랑이는슯히우름을울며애를쓰다가그자리에서죽어버리는지라주인은앗가하던일이커를파무더달다는뜻인줄집작하고그자리를집게파서정하게무더주엇더람니다그뒤부터그집는점점창성하야가세가부요하여지고유자생녀에잘살어가더니범무든자리에서삼년만에감나무한주가나가지고당년부터감이열기시작하는데그감은특별히굴고도맛이잇서근처에유명한감이되엿더랍니다지금도장수에그감이잇다고도합니다‖(끗)‖

小說 그의얼굴

憑虛

대구에서서울로올라오는차중에서생긴일이다 나는나와마조안진그를 쏘바라보앗다두루막겨매우흥미잇게바라보고 으로『기모노』를둘렷고 그안에선옥양목커고리가 내어보이며압에돌이엔중국식바지를입엇다그것은그네들이흔히입는유지모양으로 번질번질한암갈색필육으로 지은것이엇다그러고발은 감발을하얏는데집신을신엇고『고부가리』로깍근머리엔모자도쓰지안핫다우연히 잇다금괴묘한 모임을꾸미는 것이다 우리가자리를잡은차ㅅ간에는공교스럽게세나라사람이다모이엇스니 내엽헤는 중국사람이 기대엿고 그의엽헤는 일본사람이 안커잇섯다그는 동양삼국 옷을 한몸에감은 보람이잇서 일본말도 곳잘칠철머이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서룰지안흔 모양이엇다

『도고마테오이테테수가』하고 첫마듸를 건드니만 동경이 어떠니 대판이어떠니 조선사람은고추를닦지이만히먹는다는둥일본음식은 넘우싱거워서처음에는속이 뉘엿거린다는 동힁설수 설짓거리다가 일본사람이 엄지와 끈지손가락 으로짤르는게 은흔쑷쑷한 옷수엽을비비면서마지못해外떽外떽하는고개와함께『소데수가』란 한마듸로 코대답을 할뿐이오 잘바다주지안흐매 그는또중국인을붓들고 실례이올한다그비쌍나음쥐!』「네쌩썸마」하고 덤벼보앗스나 중국인 또한그기름에인 뚜우한얼골에 수수적기가튼우슴을 띄울뿐이오 별로대꾸를 하지아햇건만 그래도무에라고 련해웃얼거리면서 나를모고 우서보이엇다 그것은마치집승을놀리는 요술장이가 구경군을 바라볼때처럼 흥글한계재조를 갈채해달라는우숨이엇다

나는 쌀쌀하게 그의시선을피해버렷다 그주적대는꼴이 엇줍지안코 밉살스러웟슴니다 그는 잠간 입을닷치고 무료한듯이머리를 더억더억굴기도하며 손톱을 니로물어뜻기도하고 멀거니 차창밧글 내다보기도하다가 암만해도 지뤌대지안코는 못참겟든지 문득나에게루향하며「어대써정가는기요』라고 경상도사투리로말을부친다

『서울까지가오』

『그런기요 참반갑구마 나도 서울써정가는데 그런 우리동행이되겟구마』

나는 이 지내치게 반가워하는말씨에 대하야 무에라고대답할말도업고또구지대답하기도실키에 덤덤이 입을다처 버렷다

『서울에 오래살앗는기요』 그는 또물엇다

『륙칠년이나됨니다』조곰정가시다십헛스되 대우안흘수도 업섯다

『에이구 오래살앗구마 나는 처음길인데 우리가튼 막버리군이 차를나려서 어데로차자가야되겟는기요 일본으로 말하면 『기진야도』가튼것이 잇는기요』 하고 그는답답한 제신세를생각햇든지 쳥 그러보히엿다 그써나는 그의얼골이 웃기보다 쳥그리기에 가장걱당한얼굴임을 발견하엿다 군데군데 쥐커진졍청드뭇한눈섭이 알알이 일어서며 알로 축처지는 서슬에랑미간에는 여러가닥출음이잡이고 광대뼈우흠로 쌈人살이 실룩실룩보이자두볼은 쪽빨아든다 입은소태나 먹은것처럼 왼편으로쎄뚤어지게 쇠커올라가고 조이든눈엔 눈물이괴인듯 삼십세밧게안되며 보이든 그얼골이십년가량은 늙어진듯하얏다 나는 그신사스러운 표정에 얼마즘감동이되어서 그에게대한 반감이 풀려지는듯하엿다

『글세요 아마로동숙박소란것이 잇지요』

로동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뭇고나서

『시방가면 무슨일자리를구하겟는기요』라고그는 매여달리는듯이또재처엇다

『글세요 무슨일자리를구할수잇슬는지요』나는 내대답이너무 텡텡하고 불친절한것이 죄송스러웟다 그러나일자리에 대하야 아무지식이업는 나로서는 이외에더 조흔대답을 해줄수가업섯든것이다 그대신나는 은근하게 물엇다

『어대서오시는길입닛가』

『흥 고향에서 오누마』하고그는 휘한숨을쉬엿다 그러자그의 신세타령의실마리는풀려나왓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멀지안흔K군H란 외따른동리엿다 한백호남짓한 그곳주민은 전부가역농군들로 파면고살엇는데 역둔토로말하면 사사人집쌍을 부치는것보다 헐티지는것이 후하얏다 그럼으로 넉넉지는못할망정 평화로운농촌으로 남부러울지안케지낼수잇섯다 그러나세상이뒤바귀자 그쌍은귄부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들어가고 말앗다 직접으로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게나 되엇스면 그래도나흐련마는 소위중간 소작인이란것이생겨나서 귀는 손이흙한번만커보지도안코 동척엔 소작인노릇을하며 실작인에게는 다주행세를 ?게되엿다 동척의소작료를물고나서 또중간작인에게 바치고보니 실작인의 손에는소출의삼할도 떨어지지안햇다 그후로『죽겟다 늑못살겟다』하는소리는중에 연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오르나리게되엇다 남부녀대하고타처로 류리하는 사람만늘고 동리는점점쇠잔해갓다

지금으로부터 구년전 그가열일곱살되던해봄에 (그의나히는 실상스물여섯이엇다 가난과 고생이얼마나사람을 늙히는가)그의집안은 살기좃타는 바람에서 간도로이사를갓섯다 쫏겨가는이의운명이 어듸 어데를간들 신신하랴 그곳의비옥한 전야도그들을위하야열려질리업섯다조금조흔땅은 먼저간이가 모조리차지를하얏고 황무지는 비록만타하나그곳낭도하는 날부터 아츰써리커녁쎠리가 걱정이라 무슨형세로 귀어도일년이란 장구한세월을먹고입어가며거친쌍을풀수가 잇스랴 남의 미천을어더서농사를짓고보니 가을이되어 남는것은빈주먹뿐이엇다 잇해동안을 사는것이아니라 억지로 버틔어갈제 그의아버지는 우연히병을어더 타국의 외로운혼이되고 말앗다 열아홉살밧게 안된 그가홀어머니를모시고 악으로 악으로 모진목숨을니어가든중사변이못되어영양부족한몸이심한로동에 지친탓으로그의어머니또한죽고 말앗다

『모친서정돌아갓구마『몰아가실쇄힌죽한목음도 못자섯구마』하고이약이하든이는문득말을뚝끈는다 그의 눈이번쩍번쩍 함은 눈물이쏘다젓슴이리라 나는무엇이라고위로할말을몰랏다 한동안 머뭇머뭇이잇다가 나는차를탈써에친구들이사준정종병마개를째엿다 차잔에부어서그도마시고나도마시엇다 악착한운명이던져준 기픈 슬픔을 술로독이라는듯이 련거퍼 다섯잔을 마신그는다시말을 계속하얏다 그후그는부모입혼쌍에 올애먹을기 실혀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팔다가 일본으로 또벌이를차자가게 되엿다 구주탄광에잇서도 보고 대판철공장에도 몸을 담아보앗다 벌이는 조금낫스나외롭고쓸쓸은몸은 자연히 방랑해졋다돈은 모을래야 모을수업고 잇다금을화만 치바치기째문에 한곳에주접을하고 잇슬수업섯다 화도나고 고국산천이 그립기도하야서 훌쩍뛰어 나왓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버리를구할겸 구경도할겸 서울로 올라가는길이라한다

『고향에가시니 반가워하는사람이잇습듸까』나는 탄식하얏다

『반가워하는 사람이다무원기요 고향이 통업서젓드마』

『그러켓지요 구년동안이면떡변햇겟지요』

『변하고 무어고간에아모것도 업드마 집도업고사람도업고 개한마리도 얼신을 안트마』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엇단 말슴이오』

『흥그러쿠마 뭇허지다가당만만 즐비하게 남앗즈마우리살든 집도 터야안남앗겟는기요 암만차커도 못찻겟드마 사람살든동리가 그러케된것을 흑구경햇는기요』 하고그의쐈는듯한목은울하하첫다나『써어넘어진새갈여들돌구르는 주추는!쑥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허러커처노흔것갓드마 세상에 이런일도잇는기요 ?백여호 살든동리가 십년이못되여 통업서지는 수도잇는기요 후─』하고 그는한숨을쉬며그때의광경을 눈압헤 그리는듯이 건이먼산을보다가내가쓰라주을 불걱 들어켜고『참 가슴이 터지드마 가슴이 터커』하자말자굵직헌 눈물두어방울이 뚝뚝떨어진다

나는 그눈물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얼굴을 똑똑이본듯십혓다

이윽고 나는 이런말을물엇다

『그래이번길에고향사람은 하나도 못맛낫습니까』

『하나맛낫구마 단지하나』

『친척되시는분이든가요』

『아니구마 한이웃에살든사람이구마』하고 그의 얼골은 더욱 침울해진다

『여간반갑지안흐셧겟지요』

『반갑다말다 죽은사람을맛난것드마더구나그사람은나와까닭도 좀잇든사람인데……』

『까닭이라니?』

『나와혼인말이 잇든녀자구마,』

『하─』나는 놀랜듯이 별입이 닥커지지 안햇다

『그신세도 내신세만이나하고』

나하고그는 또이약이를계속하얏다 그녀자는자긔보담 나히두살우이엇는데 한이웃에 사는탓으로 가티놀기도하고 싸우기도하며 자라낫섯다 그가열네댓살썩부터 그들부모들사이에 혼말이잇섯고 그도 어린마음에매우탐탁하게 생각하얏섯다 그러테 그처녀가 열일곱살된 겨을에 별안간 간곳을 모르게되엿다알고보니 그아비되는자가 이십원을밧고 대구유곽에 팔아먹은것이엇다 그소문이퍼지자 그처녀가족은 그동리에서 못살고멀리 이사를갓는데 그후로는 물론피차에한번맛나보지도못하얏다이번에야 빈터만남은 고향을구경하고 돌아오는길에 읍내에서그를맛나게되엿다 처녀는 어떤일본사람집에서 아이를 보고잇섯다 절녀는 이십원 몸갑을 십년을두고 갑핫건만그래도 주인에게 빗이륙십원이나 남앗섯는데 몸에 몸쓸병이들고 나히늙어저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되는자가 특별히 빗을탕감해주고 작년가을에야 노하준것이엇다 절녀도 자긔와가티십년동안이나 그리든고향에 차자오니까 거긔는 집도업고부모도업고 씀씀한 돌무덕이만눈물을자아넷엿이엇다 하루해를 울어보내고 읍내로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십년동안에 한마듸두마듸배와두엇든 일본말덕택으로 그일본집에 잇게된것이엇다

『암만 사람이변하기로 엇재그러케도 변하는기요? 그숫만튼머리가 훌렁다버서젓드마 눈은 움푹들어가고 그이들이들하든 얼굴빗도 마치유산을쎄어진듯하드마』

『서로붓잡고 만히 울엇겟지요』

『눈물도 안나오드마 일본우동집에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한열병 따려누이고 헤여젓구마』하고 가슴을 쏘는듯이 괴로운한숨을 쉬드니만 그는지낸슬픔을새새록새록이자아내어마음을새기에 지치엇슴이런라

『이약이를다하면 무얼하는기요』 하고 씁씁하게 입을다문다 내또한 넘우도참혹한 사람살이를듯기에 쏨쏨이낫다

『자 우리술이나 마커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서로주거니밧거니 한되병을 다말리고말앗다 그는 취흥에겨워서 우리가어릴써 멋모르고 부르든노래를읍조리엇다

볏섬이나 나는건토는
신작로가되고요──
말마듸나하는친구는
감옥소로가고요──
담배대나 떠는로인은
공동묘지가고요──
인물이나 낫는계집은
유곽으로가고요──

(十二月三日夜)

宣川郡深東林洞 金道濬
宣川郡深川面灤里洞 回春堂藥房 金炳謙
宣川郡東林驛 桂永律
宣川郡深川面付息洞 桂翼鋈
宣川郡新府面淸江洞 駐在所職員一同
宣川郡南面三峰洞 朴彭采
宣川郡宣川面川南洞 醫坊 金錦桃
宣川邑內 醫坊 金香心
宣川邑內 醫坊 金蓮葉
宣川本町 龍洋商會 主 田文坎
宣川邑內 泰平理髮館 李昞泰
宣川郡深川面 金永禮
龜城關西面造岳洞 鑄業 承禎現
宣川郡郡山面長公洞 私立大同學校 學監 金澤明
宣川郡水淸面 韓承鎬
宣川郡 殖産銀行 宣川支店 橫山治吉
宣川邑川南洞 朴龍濬
宣川郡本町通 福音印刷所
宣川郡郡山面事務所 職員一同
宣川郡川南洞 田俊官
宣川郡深川面古軍營洞 駐在所職員一同
宣川郡郡山面龍洞 朱信淵
宣川郡合山面仁岩洞 金炳勳
宣川郡川南洞 車炳毅
宣川郡東面路下洞 田宅正
宣川郡郡山面古府洞 車益豊
宣川山面事務所 桂行集
宣川邑內 朴明根
宣川郡水淸面古邑洞 金斗壽

宣川郡水淸面三崇學校 教員 張○煥
宣川郡郡山面龍洞 朴鳳一
宣川郡內 醫業 元亨日
宣川郡內川南洞 金鳳淵
宣川郡郡山面龍洞 朴元祚
宣川郡南面石湖洞 朴典采
宣川郡合山面仁谷洞 宣仁局 車麒贊
宣川郡水淸面嘉物南里 私立三崇學校 校長 車均祥
宣川郡郡山面 私立光東學校 校長、教員 金贊德 宋日煥 李子今 張利初 高淳瓚
宣川郡新府面承旨洞 申鳳千
宣川郡新府面承旨洞 李鳳吉
宣川郡深川面事務所 職員一同
宣川郡合山面仁岩洞 李仲錫
宣川郡東面路下洞 金德謙
宣川郡邑內川南洞 桂龍洙

宣川郡內川南洞 醫業 崔昌學 電話一一九番
宣川 宣川警察署職員一同
宣川東面仁谷洞 宣川金山第一鑛採掘事務所主任 金晶默
宣川郡廳職員一同
宣川郡東面仁谷洞 玄行觀
宣川郡廳 金鼎屋
宣川邑本町 壽山醫院 院長 李昌鎬 電話五四番
宣川邑 仁濟病院 醫師 洪致業 醫師 吳震泰 電話五九番
宣川郡 宣川郵便局 職員一同
宣川郡南面事務所 職員一同
宣川郡宣川面事務所 職員一同
宣川郡合山面事務所 職員一同
宣川郡 吳弼殷
宣川本町 宣川醫院 院長 金昌郁 電話六九番

宣川郡 朴仲瑞
001558
宣川郡東面仁谷洞 玄聖默
宣川郡內川南洞 白雲行
宣川郡郡山面龍洞 朴春官
宣川金融組合
宣川殖産銀行 宣川支店長 平山作次郎
宣川郡本町通 宣川齒術院 玉文振
宣川東面 面長 田英淳
宣川郡邑內 宣川電氣株式會社取締役 車均卨

內外面으로본 開城의鳥瞰

開城支局 一記者

序言

朝鮮에잇서가지고 朝鮮人의都市로는누구나다 開城을指摘할것이다開城은實로朝鮮人本位의朝鮮人的都市로서그가엇더한곳이라말하지아니할지라도 우리의記憶에歷歷하야田夫野人外지라도다가티追想讚美하며 그리워하는곳이다그런데記者가이에筆을擧하야開城內外相을紹介코저하나 觀察과批評이犀利치못하고文辭亦流暢치못하야自信잇는붓을놀지못하는것은한遺憾으로생각한다

上下四千餘年의朝鮮歷史中에黃金時代인高麗國의五百年古都開城이야말로歷史가깁흔곳이다高麗의偉業이發展된곳도開城이요 高麗의王業이亡한곳도開城이다 只今過去의開城을追憶하매 만흔感慨를不禁한다하지만記者는過去의歷史를쓰고저하지아니하고現在의內外相으로본開城을紹介하는것이目的이니 이에말할바이아니다

開城은四九、一七四方里의面積에十六面一百四町洞里와 戶數二萬四千三百五十六戶와人口十二萬二千六百八十二人(大正十四年一月一日現在)을包擁한大郡으로서市街地(松都面)은三方이山으로圍繞된楕圓形의盆地로서 面積一、三方里에戶數八千一百七十三戶人口四萬三千一百八十八人을가진朝鮮의朝鮮人都市요 世界名産高麗人蔘의特産地로聲名이놉흔都市이다

朝鮮人의開城

이에開城의商業과交通의中心이되고 우리의品位를놉혀주는모든人化의中心이되는市街地의松都面을標準으로하고內外面으로본開城의實相을적어보자면거現在面內戶口부터內外國人別로詳細히區分하야紹介하건대 (大正十四年一月一日現在)

戶數로보면

朝鮮人 七、九三〇戶
日本人 三三〇戶
外國人 五〇戶
總計 八、一一三戶

人口로보면

朝鮮人 男一九、九九九人 女二一、六五九人 計 四一、六五八人
日本人 男六七〇人 女六八三人 計 一、三五五人
外國人 男一四四人 女三一人 計 一七五人
總計 四三、一八八人

이러한現象이다 이戶口總計의數字만보지라도開城의主人은누구이며 代表的勢力者가누구인것을能히알수잇슬것이다 朝鮮人四萬一千六百五十八人對日本人一千三百五十五人 朝鮮人戶數七千七百九十三戶對日本人戶數三百三十戶라하는 全혀比較할餘地가업는對照이다

現下朝鮮사람이當面한重大問題中에 大問題가 무엇이냐全朝鮮名都市마다平地의살기조흔곳과市街의장사하기조흔곳에陽明하고廣大한家屋은누가이를占領하고잇는가그리고살수업서交通의往來가不便하고偏僻한엇던구석의險少한陋屋에서僅僅히生을부지고사라가는사람은누구인가一萬四千三百餘方里에二千萬이라는사람이사는朝鮮의서울로서모든文化의發祥地요商業의中心地가되는大京城을보자

京城은繁華한都市이다그리고도每日每日繁盛하고隆昌하야압흐로작구發展되여간다 그러나京城의主人은누구냐 大京城의勢力者가누구구어냐 京城의主人은朝鮮사람이아니며大京城의勢力者는朝鮮사람이아니다 오날의京城의地盤은그만破竹의勢로물러드러오는日本人의勢力에根本으로動搖되고마럿다 먼저日本人의日益膨脹하는戶口數에밀리고 土地로商工과金融으로財産으로 日本人의勢力은 날로增加된다 昨日外지도朝鮮人의所有이든家屋이며店鋪며 土地가 그翌日만되면그만남에게로넘어가 京城은漸漸興旺하는一面으로 朝鮮人의京城은 날로줄어들어生活의根據를 陽明한빗이도는 市街로부터 어둡컴컴한郊外의엇더한한모퉁이로 平地의往來가便한住宅地로부터 山꼭닥이의險惡한곳으로올기게되며 自然淘汰를바더서 全京城의朝鮮사람은엇더한特權階級의 一部를除한外에는 다가티敗北의悲哀를맛보게된다

朝鮮의縮圖라하는京城이 이러한現狀이니 其他朝鮮各處의都市는 말할나위가잇스랴 釜山은京城以上의尤甚한慘酷한狀態이요 仁川이亦是그貌樣이다 또平壤大邱元山淸津群山木浦도一般일것이다 엇더한都市든지日本人의獨舞臺이다 이는무슨排他的思想으로 그러하는것아니라 「우리」라하는儼然한事實을否定치못할以上 어듸外지던지생각하여야할것이다 그런데이무슨奇蹟이라! 開城만은依然한우리朝鮮人의開城이다

그는돈!돈! 오즉나에게는돈이다 죽어도돈 살어도돈돈밧게는아무것도업다는 開城사람들의 絶對的自助主義의精神에依하야父子間이나 兄弟이라도 네것내것을儼然히區別하야가지고 아모에게든지 依賴하는法이업시 極盡히周密하고沈着하고도利害打算에무섭게밝은天下無比의商業的手腕의 外人侵入防禦策이잇는外닭이다 外人이라면 金錢의融通을아니하고 物件賣買를아니하는以上에야 外來勢力이 우리에게엇지하랴 高麗人蔘物産地의 開城이라함보다 朴淵瀑布所在地의開城이라함보다도 어대外지던지開城을 朝鮮人의開城으로維持하는것이 이얼마나더큰자랑이되며名譽가되랴 實로高麗人蔘朴淵瀑布와가티 朝鮮人開城의維持가 開城三大자랑中의한名物이라할수잇다

開城은살앗다

엇더한方面에 어느點으로보던지生氣가돈다 開城의中央之地인南大門에서 東으로善竹橋外지 西으로 停車場通路外지 南으로 龍岫山通路外지 北으로 松岳山通路外지 十字形으로直通된開城市街는 巨大한石造洋屋이間間히석기여 瓦家와草家가相半하게드러안진것을볼때에 그淸潔하고爽快한氣分을주는것이란 어느新市街地에比할바가업시整頓될때로되엿다市街의距離는全部가商店으로서朝鮮人들이 그有名한商業的手腕으로商權을못잡고무섭게活動들을한다 一年에約三百五十萬圓의産出額 朝鮮人經營의 人蔘耕作者同業機關인 開城蔘業組合이잇고 大小規模의數十을算하는人蔘販賣專門의會社商店이모다 朝鮮人經營으로서 內外各地의移出輸出에努力한다 또今年부터는每年定期로 蔘今市가開設되여 主로人蔘販賣振興에就하게되엿다 또한가지特筆할만한것은 開城에서만흔 우리朝鮮사람의손으로 電氣를供給하는것이다 이러듯一般經濟界에는무엇에나 朝鮮사람이勢力을잡고잇는것은 勿論이어니와 또한가지오날날開城이商業的都市라는聲名이天下에喧藉된原因은 全朝鮮各地를곳곳이流動하는行商이만흔外닭이다

짐으로地方에流動하는行商이란有名한것이다보人들이을걸머지고黃海道平安道로忠淸慶尙全羅咸鏡等各地로流動하면서貸金業을비롯하야雜貨貿易等을하야가면서엇더케하야서든지돈을모아가지고陰曆歲末이면다各其開城으로드러온다엇더케나規模가잇고撙節한지 이러케行商으로五六年乃至七八年만汨沒하면大槪는다成功을한다 그러면그째에야田畓을장만하고드러안는다이리하야開城에는自古로富者가만라 이에參考로開城市內財産家의最近調査狀況을摘記한다 元來開城의富者들이라는것은돈잇는것을숨기는外닭에世上에알려지지안은富者도만을것이다 그럼으로이統計가正確하고不正確한것은質明할수업다 但只十分信用할수가잇는統計라고만말할뿐이다

一萬圓以上 三百七十一人
五萬圓以上 二十六人
十萬圓以上 十八人
二十萬圓以上 十四人
三十萬圓以上 十六人
五十萬圓以上 三人
七十萬圓以上 一人
一百萬圓以上 五人
二百萬圓以上 一人

教育에는盲目

開城人은周密하고獰惡하고金錢에利害가밝은만큼 教育에는理解가도모지업다 現在開城市內의學校狀況으로말하면朝鮮人便으로

公立普通學校 三校(內女一)
私立普通學校 五校
公立商業學校 一校
私立商業學校 一校
私立高等普校 二校(內女一)

等으로서 都市의品位로나人口의比率로보면 매우小하다日本人便으로는

公立小學校 一校

가잇슬ᄯᅳ름이다 그런대朝鮮人便學校中公立普校三校와公立商校一校를除하고私立學校中貞信女普校를除한外로는 私立商校一校와私立學校四校私立高普校二校等全部가佛教基督教等엇더한宗教團體의經營下에잇는데는다시한번疑訝를아니할수업다이點으로보아開城사람은 全혀敎育에는盲目이라하야도過言이안일것이다 宗教學校를除하고公立學校를除하고나면오즉貞和女普校一校가開城人의經營하는學校다 그러나 이學校도純全히開城人으로만維持하야나가지를못한것을생각할때에實로痛嘆할노릇이다

그런데한가지奇現象은外地留學者가만흔外닭인듯하다京城은말할것이업거니와 東京을비롯하야日本各地에散在한留學生數만四五十名이된다한다그러나眞實한學生의本分을가지고修學에汨沒하는學生은 一部分에不過하고多大數는留學生이라稱託하고太高한學資를浪費하면서 空然히浪漫生活을하는者들이라한다그래서開城으로부터日本各地에留學生이란너간자이미十有餘年에至하얏지만 何等可觀할成績이無하고 그間目的의學校를完全히卒業하고歸國한者가僅히二十五名假量에不過한다는데는또한번놀날일이다 此外에中國方面에도留學生이幾何間잇스나亦是그貌樣이다이러한敎育이萎靡不振하고 學生界의成績이조치못함과마찬가지로開城의靑年界는無氣力한것이 마치죽은것과갓다 高遠한理想과雄壯한氣宇로正義를爲하야싸호고저하는아모意力이업시모도一身의幸福과歡樂만貪하야 雙肩에걸머진무거운責任을생각지아니하고紅燈을찻고綠酒를求하야그들의生活의傾向은쌀조아享樂遊戲氣分으로充滿되엿고 思想的傾向은至極한頹廢的이고無反省的이며開城의靑年界는全혀白沙地로아무것도아니다 그런데近日一部의思想靑年間에서發團의旗幟를날리는現像이나그後微弱함이比할데업다 現在靑年團體로는高麗靑年會、思想團體로는松都靑年會自由會衡平靑年會等의團體가잇슬ᄯᅳ름이다이外에宗教布教機關으로高麗女子館中央會館等이西洋人經營下에잇서가지고 金力을消費하며그만한機關을毀損하야주어가며서基督教를維持하야나가는中이다 萬一에오는날開城에잇서가지고 洋人이努力이그만하지아니할진대 基督教는一朝一夕에滅亡하야버릴것이다 實로開城의基督教布教機關은宏壯하다 二校의中等學校와 四校의初等程度學校와大規模의 工場이며病院이며 이로擧論할수업슬만큼만흔機關에서 信徒를養成한다 이리하면서도顯殊한成績을 擧치못한다 基督教外로는무슨敎이고足히擧論할餘地가 못되니말할것이업거니와 一般婦女들이 佛風을崇尙하는것은 한때傾向이다 이는아마高麗時代의隆盛하던佛風이 오날外지도無識한一般婦女들에게는 因習이된貌樣이다 開城사람이宗教에對한 觀念은이와가티薄弱한同時에宗教界의現狀도 擧論할것이아무것도업다

開城의山水美

인제는開城의 山水美를좀보자 어느點으로보던지 開城에는모든것이 다美다 市街의너커분하거나털렁털렁한氣分이업시말숙한것이라던지 비록人心은영악하다할지라도 그사람됨이매우긴하고뚝뚝하고도 아담스럽고 多情하야보이는것이라던지 貧富의隔隔한差異가업서서사람사람이 다그만그만한체잇는家屋에서 제各其代代로나려오는恒産을가지고 다른都市와가티各地各色의 人種이모여살지안니하고 由來의開城사람서리만 모든勢力을能히自保하야나가면서 平安히生活을하는것이나 어느것하나美아닌것이업다 그러나그中에도 全開城의모든美를總代表하는것은 山水美이다

開城의地氣가元來白沙層石인것도한原因이겟지만 銀모래가터맑고깨끗한 모든自然의美는到處에널리여잇다 第一먼저朴淵瀑布는 朝鮮에山으로는金剛山 瀑布로는朴淵瀑布라고各其그雄大한것을 말하는것과가티實로絶景이다 天摩聖居兩山이中斷되고 萬仞石崖가洞口에橫截하얏는데 그中으로부터 여러골작이물이 合水되여一派長川이되여가지고 石에도激하고崖에도衝하면서 崖上石嵌으로떠드러가 다시盤回盈溢하야三萬馬가敵으로赴하듯 壯嚴히흠十餘丈의斷崖로落下하니 飛雪은虹에가득하고 雷響은山岳이떠나갈듯하야 그奇絶壯絶하고絶快絶快함은一一히 文筆로는織悉할수업스니 그附近一帶의風光이明媚하고 奇勝한것과한데로하야 果然天下의絶勝한名所라는 感歎辭가 커절로나올뿐이다

또世人이널히잘아는 彩霞洞扶山洞으로말하면 봄이면은꼿求景으로 녀름이면은물노리로 가을이면은拾栗과 觀楓으로四時로놀기조흔곳이다 古蹟으로는 첫재로滿月臺를칠것이다 아!滿月臺、世上이變遷이라는것은果然무서운것이다 志士는이곳을차질때 눈물지워恨心지을것이오 詩人은이곳을차질때 넷崇華를追憶하는感傷의노래가나올것이다 아!多情多恨한五百年王都의 宮城자리滿月臺—松岳의푸른솔은 依舊하고朴淵의물소래는 變함이업것만은 그때의文物은어듸가볼어보며 그때의帝王은어듸가서차저볼가 오날에묻혀진石臺와茂盛한雜草만남아잇는것을 볼때에實로感慨가깁도다 이에滿月臺를두고와曹元天錫吉再두先生의詩를記하면

興亡이有數하니 滿月臺도秋草로다 五百年王業이牧笛에부쳣스니 夕陽에지나는客이눈물겨워하노라(元天錫)

五百年都邑地를 匹馬로돌아드니 山川은依舊하되 人物은간곳업네 어즈버太平煙月이꿈인가하노라(吉再)

滿月臺다음으로는善竹橋를칠것이다 朝鮮四千年史에가장光彩를내이는高麗朝의忠臣鄭夢周先生이 몸과목숨을나라를爲하야殉節하신곳이 善竹橋이다 億萬古를永遠히不滅할先生의精血이于今外지도 松岳山으로부터흘러나려오는맑은시내가 白沙우으로걸처잇는이善竹橋의一便에歷歷히빗나고잇서 高麗朝의마지막빗이되신先生의精靈을빗내고잇다 누구라이善竹橋上에干今것빗나고잇는先生의精血을對할때에悚懼와追慕의念이아니이러나랴이에先生이爲國輔臣의熱烈한思想으로부터流露된詩調一句를記하으니

이몸이죽고죽어 一百番고처죽어 白骨이塵土되여 넉시야잇고업고 님에向한一片丹心이야가실줄이 잇스랴

이라하섯다 開城의名勝과古蹟을紹介하자면限이업슬것이다寺刹이雄大함이라던지風光이明媚함이라던지어느點으로나朝鮮에有名한 藏寺라던지 麗末七十二士의餓死處로有名한杜門洞이라던지朝鮮四大種의一인開城南大門樓上의鐘이라던지訓鍊院觀德亭崇陽書院敬德宮成均館等名勝으로는睪釣臺雙瀑洞松岳山等一一히擧論을하자면限이업겟기로그中에서가장內外各地에널리알려진것만紹介하고그만두고자한다

風俗의美醜

都大體開城은長點이만타하얏지만 이에따라서短點도적지안타開城의婦女들이란迷信을되우직히고 아직도치마쓰고단이고頑固함이比할데업고 早婚의惡習 葬禮祭祀婚禮에濫用濫費하는것等은다開城의短點이라할수잇다 첫재에婦女들의迷信이라는것은 무섭고두려운것이다그中에더욱可驚할노릇은相當하다고指稱을밧는男子들이 一個無識頑妄한婦女와가티 아니그以上으로더怪惡한行動들을하는것이다 例하자면數年前에全國的으로大聯合의굿을滿月臺上에서敢行하고저하든것으로보든지又는 累互萬의巨額을投하야宮城가티修築을하야노흔宏壯한關王廟로보든지 開城頑固한男女間에盛行되는迷信崇拜는오날外지도實로如干이아니다 돈잇는사람이업고一年幾次式굿아니하는사람이업고又葬禮나祭祀와가튼것은全財産을總擧하야도조금도相關이업다한다

또早婚으로말하면 數年前外지만하야도十歲以上이면 다婚禮를擧行하얏다 萬一에男女間에十五六歲에至하도록婚禮를行식아니하는時는큰羞恥라하고떠들게되엿다 그러하든것이近來에는 次次世潮의變遷에따라서그러한 早婚의惡習이漸減한貌樣이나 그래도早婚의傾向이오날外지도 流行이되여開城사람치고서 十五六歲以上이면 全部가아마旣婚者가될것이다 또한가지 一般婦女들이치마쓰고단이는것은 經濟上으로나 美觀上으로나第一먼저撤廢하야야할것이다

이와가티開城의短點은無識한婦女나頑固한男子들이全部차지하고잇다 그러나時代는漸漸으로變하고 이에따라서人心은각구動하는以上 그들의迷信的崇拜와無智的行動에도만듯이큰影響이미칠날이잇슬것이다(開城)

馬山府元町埋立地 米雜穀商 金斗彦 電話二七六番

馬山府元町魚市場 海陸物産委託販賣 金鍾哲商店

馬山府元町魚市場 海陸物産委託販賣 金宗璉

馬山府元町魚市場 海陸物産委託販賣 明道燦 電話三三九番

馬山府元町魚市場 海陸物産委託販賣 金宇璟

馬山府元町埋立地 米雜穀商 黃奭鏞

馬山府元町魚市場 海陸物産委託販賣 朴璿琦

馬山殖産銀行前 朝陽製菓所 主 金容煥

馬山府石町 乾材藥局 朴相采

馬山府石町 綢緞布木商 朴成實商店

馬山府萬町 大昌旅館 主 崔晉全 電話四二二番

馬山府富町 綢緞布木商 崔永漢

馬山驛通 半島洋服店 電話(八八)

馬山驛通 浦上運送店 鄭明魯

新馬山 米田八百三

馬山南鮮券番 藝妓 尹錦蓮

馬山南鮮券番 藝妓 金玉姬

馬山府午東洞 金貞順

馬山府午東洞 金菊姬

馬山府壽町五〇番地 貸座敷 南海樓 主 河龍權

馬山南鮮券番 藝妓 金蘭香

馬山府萬町 角丸印刷所 主 黃義性

馬山府石町 諸物産委託及貿易 吉興商店 主 李順吉 電話一〇八番

馬山府元町 三光鉱力工場 場員一同

馬山府萬町 具聖傳

馬山憲兵分遣所 所長 片相文三

馬山公立普學校 職員一同

馬山府元町六二 舊馬山魚船倉合浦社

馬山府萬町 藝妓組合 南鮮券番

馬山府萬町 鶴山醫院

馬山府萬町 相穆齒科醫院

馬山府萬町 南昌醫院 彭在渠

馬山府新町 米穀商 朴漢鉉商店 電話四〇番

馬山府石町 米穀商 薛永熙商店 電話一〇〇番

馬山府石町 泰華書館

馬山府石町 朴聖則

馬山府石町 海陸物産委託販賣 泰共號 洪和根

馬山府元町 綢緞ゴム靴都散賣商 永順昌商店 主 徐順正

馬山府元町 綢緞布木商 黃基秀商店

馬山府元町魚市場 海陸物産貿易及販賣 金元經

馬山府元町上埋立地 精米雜穀鹽類肥料貿易販賣 徐在坤商店

馬山府元町 綢緞布木商 南士兼商店

馬山府元町 海陸物産委託販賣 朴明克 電話三〇六番

馬山府元町 海陸物産委託販賣 兄弟商店 宋寶且

馬山府俵町 三信洋服店 主 金再玉

馬山府俵町 各種紙物抽紙染紙文具雜貨 壽南商店 主 崔京錫

馬山府俵町 ㈦南鮮運送部 明瀅奭

馬山府俵町 東成洋服店 主 朴東成

馬山府俵町 雜貨商 三角商店 主 李洋和

馬山府俵町 金在鏞

馬山府石町 司法代書人 金仁培

馬山府壽町 司法代書人 金炯珍

馬山府壽町 貸座敷 醉仙亭 主 李貞順

馬山府壽町 貸座敷 嶺南樓 主 申泰重

馬山府富町 靑皮玉色圖書製造特賣 主 李相潤 電話一二九番

馬山驛通 米雜穀精米業委托販賣 尹致斗商店 電話二三番

馬山府午東洞 李鎭雨

馬山府萬町 李相滿

馬山府萬町 李鐘成

馬山府萬町 米穀委托賣買商 彭德善

馬山府萬町 東岡洋襪工場 主 姜大瓊

馬山府萬町 司法代書人 辛容植

馬山府外 濠信學校 職員一同

馬山府元町埋立地 倉庫業並火災保險代理業 馬山倉庫株式會社 電話二三一番

馬山府石町 馬山産興貯蓄組合

馬山線運送取扱業者組合

馬山府元町埋立地 南鮮海産物株式會社 馬山出張所

馬山府 寺島利久

馬山府俵町 馬山府協議員 黃甲周

馬山府俵町 馬山府協議員 徐光遠

馬山府萬町 王麒煥

馬山府午東洞 徐相源

馬山府元町 米雜穀貿易商 馬山精米所 主任 李行九

馬山府元町 咸在鶴鐵工所

馬山府壽町 シンガー裁縫機械會社 主任 朴永鉉 電話二七〇番

馬山府元町 米穀委託 李澤龍 電話一三三番

馬山府上南洞 馬山繰綿工場

馬山府元町九一의一號 元東貿易株式會社 電話二〇七番 二〇八番

馬山府元町埋立地 馬山穀物商組合 電話一七七番 二三五番

馬山府元町埋立地 米雜穀輸出入並委托賣買商 金性範兄弟商會 電話一五六番 電略 ㊎(又八)

馬山府壽町 米穀委托業 李德三 電話二七八番

馬山府萬町 韓正愚

馬山府俵町 檢皮式稻扱機檢皮式製繩機代理店取扱米雜穀並牛皮貿易商 丸友商會 電話三二五番

馬山府北馬山驛通 穀物貿易 趙鏞濮商店 電話二六番

馬山府元町埋立地 米雜穀商 金斗丙商店 電話二七六番

馬山府俵町一三一 辯護士 金鍾振 電話四二九番

馬山府元町 辯護士 朴志永

馬山府元町 司法代書人 金埌守